



비즈니스 브로커 전문

# 이경해 부동산

1.800.867.9000



Broker & Realtor (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상담



## Contact us

[www.leebrokers.biz](http://www.leebrokers.biz)

Tel.....781.297.5679

Cell.....508.962.2689

Email..kayleebrokers  
@aol.com

- ☑ 상가건물, 콘도, 아파트 건물 투자하실 분 환영
- ☑ E2비자 사업체 무료상담, 비즈니스 무료상담
- ☑ 1031 Exchange 서비스, 비즈니스 용자 알선
- ☑ 크고작은 세탁소들, 런드로맷(Laundromat) 많음
- ☑ 주유소, 식당, 편의점, 주류판매점등 다양한 사업체
- ☑ 이 외에도 다양한 리스팅 많음
- ☑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 ☑ 항상 원하시는 사업체를 찾아드립니다.

# Lee Associat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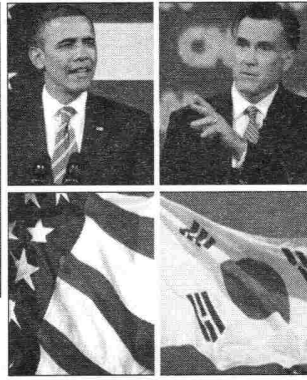
# Journal of the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Vol. 21

▶▶▶▶▶▶ 2012



뉴잉글랜드 한인 미국 시민협회



Published by: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160 Main Street  
Stoneham MA 02180  
Tel: (508)962-2689  
Fax: (781)341-8239

<http://www.KACL.org>

● Publisher:  
Kyunghae Kay Lee

● Editorial Board Advisor:  
Yang Kil Kim  
Moon So Kim  
Song-Kun Kim

● Editor-in-Chief:  
Kee-Young Lee

● Editors:  
Sang Chul Shin  
Jae B. Park  
Aaron JW Chang

- 발행처: 뉴잉글랜드 한인 미국 시민협회
- 발행일: 2012년 4월 5일
- 발행인: 이경해
- 편집고문: 김양길, 김문소, 김성군
- 편집장: 이기영
- 편집위원: 신상철, 박재범, 장정우

발간사/ 시민 협회의 비전, 변화와 진전을 향해서	● 이경해/ 회장	8
<b>KACL's Vision: One More Step Toward Changes and Progress</b>		
격려사/ Congratulatory Message		
▶ Deval L. Patrick/ Governor, Massachusetts		12
▶ John F. Kerry /U.S. Senator from Massachusetts		13
▶ Tacky Chan / State Representative, 2nd Norfolk		14
▶ Kangho Park / Boston Korean Consul General		15
▶ Leland Cheung / City Councillor, City of Cambridge		16
시/ 이민길	● 박필수/ 시인	17
발간사/ 시민협회 활동을 통한 정치력 신장	● 김성군/ 이사장	18
감사의 글 / 미국 시민권을 받고 나서...	● 김영희/ 수필가	39
특별기고/ 마사추세츠 아시아나아메리칸위원회(AAC)에 대하여	● 이경해/ AAC 위원	46
인턴보고 A Report from a Political Intern		
Understanding Real Politics	● Sungtae Park	50
Clear Vision: Attained through Internship	● Claire Boreum Lee	52
The Impact of my Heritage on the Internship Experience	● Soo Mee Yoon	56
안내/ Ben Smith for Jodge "Meet Ben"		58
안내/ 재외동포재단의 제14회 세계 한인 차세대 대회	● 김한나/ 이사	60



The Ball is in Our Court Now!

**한미 FTA 성공,  
우리 손에 달려 있다**

이유백 교수



뉴잉글랜드 한인 미국 시민협회  
김문소/KACL 고문

20年史

40

2011년 시민협회 활동보고	●박재범/ 사무총장	62
2011재무보고와 2012 예산		63
역대 정치인턴 명단		64
2012년 시민 협회 주요 행사 일정 및 주요 사업 계획		65
KACL Events and Major Activities		
2013 Summer Internship Program		66
2013 Summer Internship Program Application		67
뉴잉글랜드 한인 미국 시민 협회 헌장		68
Constitution of the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협회 임원, 이사 명단 및 주소록		70
Directory of the Officers and Board of Directors		
협찬해 주신 광고들(무순)		72



2012 U. S. Election

최홍균

2012년 미국 대통령 선거

유권자 등록 및 부재자 투표에 대하여  
How to Apply for an Absentee Ballot  
정리/ 장정우

35



이경혜 뉴잉글랜드 한인미국시민협회 회장은  
1971년 도미하여 1974년 하와이의 Chaminade Univeristy에서 사회학 학사,  
1976년 Boston College에서 사회학 석사,  
1980년 Boston University에서 Rehabilitation Counseling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리고 New England 한국학교 이사, Bentley Family Executive Committee Member,  
Advisory Board at Asian Civic Association, 남편과 함께  
Lee Associates(Real Estate and Brokerage)를 운영하고 있다.

# 시민 협회의 비전

## 변화와 진전을 향해서

### KACL's Vision: One More Step Toward Changes and Progress

●호의장/ 이 경 혜

지난해 시민협회 활동을 계획대로 무탈하게 시행할 수 있게끔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참여해 주신 김성군 이사장님, 고문님들, 이사님들과 임원들께, 그리고 시민협회 회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회보를 발행하기까지 정말 시간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이기영 편집장님께도 아울러 감사를 표합니다.



Most of all, I would like to take the opportunity to thank Chairman Song Kim, the Advisors, the Board Members, the Officers and all KACL members for their continued support and encouragement during the past year to make my presidency easier and productive and to make me feel confident in the activities KACL has planned.

2011년에 가장 뜻 깊었던 저희 시민협회 사업은 THOMAS KIM 을 연사로 초대하여 성공적으로 주최한 미래 정치인턴을 위한 모금만찬 행사이었습니다. TOM은 1998년 시민협회가 최초로 배출한 초대인턴 출신으로, 현재 워싱턴 DC 에서 가장 강력한 한국계 미국인 로비스트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TOM 의 연설은 정말 감동적이었고 우리 기억에 생생히 남아있을 훌륭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날 참석하셨던 청중들의 우뢰와 같은 열렬한 기립박수를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TOM은 우리 1세대와 1.5세~2세대들의 사명감과 할일들, 미래의 계획과 비전을 주 내용으로 전달했습니다. 우리 1세대는 "디딤돌"이 되어 차세대들을 좀 더 너그럽게 지도하고 포

I also like to give special thanks to Mr. Keeyoung Lee, editor-in-chief, who has worked tirelessly in order to publish this Journal.

I am proud to say that KACL has had the most memorable and distinguished keynote speaker for the Annual Political Intern Fundraising Dinner Event last year. He was Thomas Kim, the first intern in 1998 and is one of the most powerful Korean Lobbyists in DC today. His speech was touching, direct and challenging by focusing on the role of the first generation and the second and future generations: the first generation is the backbone in the Korean

용해서 엄격하기만 한 부모의 위치가 아니라 그들의 꿈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이해하고 용기를 주는 우리 1세대가 되어, 차세대와의 사이를 좁히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차세대의 사명은 우리 1세대를 무조건 비판하고 이해 못한다는 관념과 선입견을 버리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희생을 인정하고 미국이라는 나라에 정착하게 된 그들의 용기를 존경해서 1세대와 잘 융합하며 서로의 "다른 것"을 존중하고 평화스럽게 살아가야한다는 것을 잊지 말도록 당부했습니다. TOM은 또한, 차세대가 미국 정치계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더 많은 한국계-미국인 정치인들의 활발한 참여 없이는 미국 주류세계에 함께 하기가 어렵다는 것도 지적했습니다.

TOM은 우리 1세대와 차세대의 사명과 미래의 비전을 잘 요약했습니다. 이러한 사명과 미래에 대한 그의 비전은 시민협회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3년 동안 회장직을 맡아 일하면서 다시한번 시민협회의 사명과 역할, 미래의 비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1990년 시민협회 창립 때부터 뜻있는 많은 시민협회 창립위원들께서는 뚜렷한 비전과 미래의 방향을 정하셨고 어느덧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시민협회는 미국사회에서 한인들의 권익 신장과 차세대들의 영입과 차세대 지도자를 확보하고 키우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민협회는 얼마나 이 사명을 달성했고, 진척되었는가입니다.

이 질문에 저는 그대로 "예"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매해 시행되는 무료 시민권 취득 워크샵, 15년 동안 지속적으로 벌여온 정치 인턴 모금 만찬 행사, 유권자 등록과 투표운동, 정치인선거 자금 행사, 다른 아시아 민족 단체들과의 단합과 우대 관계 향상 등 이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니오"라고 대답하면서, 여기서 부

Community, however, the first generation has to embrace the younger generations with more understanding, clear guidelines and support, to be not viewed as an authoritative figure, to be open to their needs and strive to narrow down the gap, and the second generation has to remember who he is and what he is, not by criticizing the first generations' difficulty in assimilating into American culture, but by understanding their roots and cultures and respecting their sacrifice for their children. To the second generation, he further emphasized on the importance of working in the public service because without active political involvement and participation in the American Political Arena, Korean Americans will not be a part of the mainstream and not have a voice to represent us.

Thomas Kim has said It All. This is what KACL has been trying very hard to achieve these missions for the past 20 years. My presidency for the past 3 years has given me a chance to re-think about KACL's missions, role and future directions. Those who founded KACL in 1990 had a clear vision: Korean American Political Empowerment in the United States and furthermore, successful recruitment and development of 1.5 and 2nd Korean Americans as the future leaders of our League. How much progress has been made and fulfilled?

In response to this, I can say confidently YES with the activities with free citizens workshop, annual political intern fundraising dinner event, endorsement of politicians and assistance of Korean Americans' voting registration, and working closely with other Asian civic associations, and NO in a sense with League's continuous need to organize, cultivate and encourage the past interns' active involvement through Political Intern Alumni Association. KACL also needs to bring clear attention, consistent support and participation from the Korean Community. I know KACL's missions are intangible and will take a long term, but without our active participation and existence, the Korean Americans will not be able to make the visible progress, or to voice their needs in American Politics.

Here is shocking news: Danny Chan who was a soldier, deployed to Afghanistan, committed suicide because of "Racial Discrimination". The most

정적 대답을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떻게 긍정적으로 전진해야 되는지에 대해 중점을 두고 싶습니다. “시민협회 인턴 동문회” 구성은 계획되었던 것보다는 어렵지만 천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협회는 계속해서 인턴동문회 구성에 힘쓸 것이고, 이 인턴들이 적극적으로 연계되는 연락망을 통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나누고 미국사회에서 직장에서 훌륭한 지도자 역할을 계속 후원해 줄 것입니다. 또한, 시민협회가 계속 한인사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한인 동포 사회를 위한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단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협회의 사명은 눈에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빠른 시일 내에 뚜렷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도 아닙니다. 시민협회가 존재하지 않아도 우리는 미국에서 별 어려움 없이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인 할 수 없는 것이 아직도 미국사회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종차별”입니다. 미국에서 작년 10월에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을 전하고 싶습니다. 중국계 미국인 DANNY CHAN은 아프리카니스탄에 군인으로 파견되었는데 동료 군인들의 인종차별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살을 했고, 또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 사건의 범죄자인 동료 군인들을 재판도 하지 않고 사면해준 사실입니다. DANNY 부모는 아들의 죽음에 대한 범죄조사를 철저히 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기를 호소했습니다. 누가 DANNY를 대변할 것입니까? 만약 DANNY가 한국인이거나, 내 아들이거나, 내 남동생이라면? 우리 소수 민족을 보호해주고 대변할 사람은 누구인지 심각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범죄를 여러분 스스로가 당하셨다면, 어디에 그리고 어느 기관에 제일 먼저 호소하시겠습니까?

여기에서 분명한 해결책은 우리의 “정치적인 힘”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우리 동포가 미국사회에서 시민권 취득은 물론, 유권자 등록을 마쳐서 실질적으로 선거에 적극 참여하여야만 합니다.

시민협회 사명중의 하나인 정치인 선거 자금 지지 운동은 계속될 것입니다. 지난해에 시민협회는 캠브리지 시의원 LELAND CHEUNG 을 위한 후원모임이 하버드 스퀘어에 위치한 샤푸야 식당 (윤광현 사장님) 에서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러한 도움으로 LELAND 시의원은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한 후보로서 재선에 승리하였습니다. 또한, 2000년 저희협회 인턴으로 배출되어 현재 텍사스 주에서 검사로 재직 중인 BEN SMITH 가 이번에 판사 후보로 출마하게 되어 시민협회에서는 BEN을 지원해 주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중국계 미국인 WILLIAM TONG 이 코네티컷 주에서 하와이를 뺀 미대륙에서, 동양인최초로 연방 상원의원에 출마하였고, 우리의 도움이 절실한 상태입니다.

outrageous thing was that those American soldier had bullied him by naming, calling him “Jackie Chan” a Chinese Action Star, had been acquitted without trials or any criminal investigations. This happened only last year, October, 2011. So, let me ask this question: who will defend Danny? What if Danny were a Korean-American, my son, my brother and my friend, who will defend him? In turn, who will protect us?

One clear solution is to increase our Political Power by obtaining citizenship and showing voting power and taking an active part in the political process. The Numbers are the Power. For an example, everywhere in America, Spanish is being used because of their population and their buying-power.

Therefore, KACL will continue to host Free Citizens Workshop and Annual Political Intern Fundraising Event, to endorse politicians and to work with other Asian civic organizations. With KACL's past 48 Intern Alumni, they certainly can build the powerful Intern Alumni Network and I anticipate this Network fully function in the nearest future. I will admit that this is one of the toughest tasks we are facing. This is one more reason I like to see League's website development to bring the past interns as well as to attract the younger generations.

As one of KACL missions, KACL will continue to endorse the politicians. We had the fundraising event for Leland Cheung, City Councilor in Cambridge last year and he was re-elected as the top vote-getter. I am excited to share the great news about Ben Smith, the KACL Intern in 2000 is running for the Judge Seat in Texas. For the first time in the Continent USA, William Tong, Asian (Chinese) American from Connecticut, is also a Senate candidate. Hawaii is the only State that has Asian American Senators at present.

In this issue, we have included the articles about FTA by Prof. You Tack Lee at Emmanuel College, KACL former president - Dr. Hong Choi's upcoming National Election, MA Asian American Commission by me as an appointed commissioner on Asian American Commission and Texas “Judge” candidate, Ben Smith's Profile. Also, Poet and our board member ? Phil Soo Park's Poem, “Immigration” and a “Thank You” note from one of the attendees at Free Citizens



이번호에는 예년보다 증보하여: 이유택 교수님의 FTA에 대한 특별기고문 최홍균 전회장님의 미국대선에 관한 글 이번엔 위원으로 선출된 제가 ASIAN AMERICAN COMMISSION에 대한 소개 텍사스 주 판사 후보자인 BEN SMITH: 시인이며 현시민협회 이사이신 박필수님의 시제 - "이민" 그리고 저희 시민권 무료 워크샵에 참가하신바 있는 김영희 씨의 감사의 글이 실렸습니다.

2012년 11월은 대통령, 상원의원, 하원의원을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달입니다. 유권자 등록을 아직 안하신 분들은 타운/시청에 미리 등록하여 11월6일 (화요일) 선거일에 꼭 참가하셔서, 미국 시민으로서의 투표권을 행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투표참여가 곧 우리의 정치력 신장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키게 합니다.

시민협회의 미래를 희망적이고 긍정적으로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긴 세월 20여년 동안 존재해온 한인민권단체를 이곳 뉴잉글랜드 한인 사회에서 보지 못했고, 또 앞으로 더 긴 세월동안 시민 협회는 존재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늘날"까지 시민협회가 사명을 다 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후원해 주신 광고주, 사업체, 지역 교회 및 단체 모든분들께 시민 협회를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Workshop is written by Young H. Kim, Ms. Kim is now a proud Korean-American citizen and excited to vote this coming November.

This November will be an election for President, Senators and Congressmen. I urge those who have not yet registered to the City or Town they reside to register to vote, as an American citizen, so you can cast a vote this November because this will lead to Korean Americans' Political Power.

In closing, I feel encouraging, hopeful and positive about the KACL's future. KACL has been existed since 1990 and I am proud to be a part of KACL. No Korean organization with the missions like KACL exists for this long. Thanks to all members, Korean organizations, and business for their consistent support and contributions, KACL has come to "today" and will continue to play a vital role in the future political endeavor.

**Kyunghae Kay Lee**

1971-1974: B.A. Sociology from Chained University, Honolulu, 1976: MA. Sociology from Boston College, 1980: M.S. Rehabilitation Counseling from Boston University.

Commissioner on Asian American Commission, A Board member at NE Korean School, Lee Associates (Real Estate Brokerage) principal with husband.

**시민협회의제21호회지발간을축하합니다.**

**뉴잉글랜드 한인회**  
Korean Society of New England, Inc.

**781-933-8822**  
13 Campbell St. Woburn, MA 01801

회 장/ 유한선  
이사장/ 이병현 339-227-5229

Congratulatory Message

그림자

● 매사추세츠 주지사/ 드발 L. 패트릭  
▶ Deval L. Patrick/ Governor, Massachuset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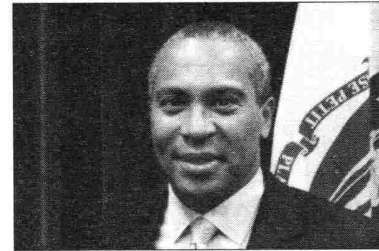
DEVAL L. PATRICK  
GOVERNOR

TIMOTHY P. MURRAY  
LIEUTENANT GOVERNOR

THE COMMONWEALTH OF MASSACHUSETTS  
EXECUTIVE DEPARTMENT

STATE HOUSE • BOSTON, MA 02133

(617) 725-4000



March 2012

Dear Friends:

On behalf of the Commonwealth of Massachusetts, I congratulate the Journal of the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a valuable community resource, on its seventeenth year of publication.

The Journal provides essential resources and services to the Commonwealth's vibrant Korean community. By providing resources promoting community involvement and citizenship, the League strengthens the Bay State and the bonds between our cultures.

I applaud the efforts of the members of the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and thank them for being actively engaged within their community and Massachusetts.

Best regards,

Congratulatory Message

그림리사

● U.S. 상원의원/ 존 F. 케리

▶ John F. Kerry /U.S. Senator from Massachusetts



UNITED STATES SENATE  
WASHINGTON, D. C. 20510

JOHN KERRY  
MASSACHUSETTS

February 29,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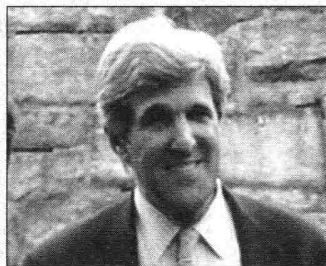
Dear Frien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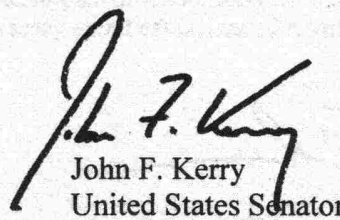
I am proud to congratulate the Korean 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on twenty-one years of success in publishing its annual Journal.

For over two decades, the members of the Korean 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have devoted their time, efforts, and expertise to celebrating our state's Korean American community and bridging the cultural gap that exists between our two nations. The League's community involvement has helped advance the status of Korean-Americans throughout all of New England.

Congratulations once again and best wishes for continued success!

Sincerely,



  
John F. Kerry  
United States Senator

Congratulatory Message



▶ Tacky Chan / State Representative, 2nd Norfolk



The Commonwealth of Massachusetts  
House of Representatives  
State House, Boston 02133-1054

**REPRESENTATIVE  
TACKEY CHAN**  
SECOND NORFOLK DISTRICT

ROOM 236, STATE HOUSE  
TEL. (617) 722-2430  
FAX (617) 626-0146  
Tackey.Chan@MAhouse.gov

COMMITTEES:  
CONSUMER PROTECTION AND PROFESSIONAL LICENSURE  
GLOBAL WARMING AND CLIMATE CHANGE  
TELECOMMUNICATIONS, UTILITIES AND ENERGY

February 15, 2012

Kyunghae Kay Lee  
President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Dear members of the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I am honored to be included in your twenty-first annual publication of the Journal of the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As an elected official I commend your organization for its mission.

Active political engagement sets a foundation for a solid democracy. The work of the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has resulted in more Korean-American gaining citizenship and the right to vote. These accomplishments are remarkable and should not go unnoticed. I also applaud your efforts to include more Korean American in the political process.

I am very pleased to be associated with the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and if can be of any assistance in the future, please do not hesitate to contact me.

Sincerely,

Tacky Chan.  
State Representative – 2<sup>nd</sup> Norfolk District

TC/br

Congratulatory Message

그림자

● 보스턴 총영사/ 박강호

▶ Kangho Park / Boston Korean Consul General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ONE GATEWAY CENTER, NEWTON, MA 02458

TEL: (617)641-2830 . FAX: (617)641-2831

February 15, 2012

Kyunghae Kay Lee  
President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160 Main Street  
Stoneham, MA 02180

Dear Friends,

It is a great pleasure in offering warm congratulations to the Korean- 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KACL-NE) and its members on many achievements since its establishment in 1990.

Let me take this opportunity to express my support for KACL-NE's mission to promote a sense of civic responsibility in the Korean-American community through voter registration, citizen training, and political activism. I sincerely appreciate the many achievements of the KACL-NE.

It is no doubt invaluable to have an organization that educate the Korean-American community about their rights and privileges, as well as create programs and initiatives that encourage the involvement of Korean-American youth, a future generation sure to lead and continue the mission of the KACL-NE.

Again, I extend a deep gratitude for its dedication for the Korean-American community. I sincerely wish KACLE-NE and its members continued triumph and prosperity for the years ahead.

Sincerely,

박강호  
Kangho Park  
Consul General

Congratulatory Message

그림자

케임브리지 시의원 / 리랜드 청

▶ Leland Cheung / City Councillor, City of Cambridge



## CAMBRIDGE CITY COUNCIL

Leland Cheung  
City Councillor

March 5, 2012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160 Main Street  
Stoneham, MA 02180

Dear Readers and Friends,

I write to extend my congratulations to the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KACL-NE) members on their successful 21<sup>st</sup> publication of this journal. Since 1990, Asian Americans have looked to this journal as a resource for news and a guide to the community, and it is with great pleasure that I offer best wishes to KACL-NE on another year of outstanding Korean American advocacy.

KACL-NE has been an invaluable partner and friend in my role as a Cambridge City Councillor. Our partnership has allowed me to connect even more closely with the Asian American community as I was a speaker at their Political Intern Fundraising Dinner Party and KACL-NE hosted a fundraiser on my behalf this past August.

KACL-NE has taken strong steps to advocate for Korean Americans at all levels of government, provide political and legislative internships for young leaders of tomorrow, support politicians who value and protect the rights of Korean Americans and encourage participation in the American political process. The publication of the KACL-NE journal will help continue its critical mission of enabling immigrant families to realize lasting economic self-sufficiency.

KACL-NE's efforts to promote the growth of Korean Americans will undoubtedly lead to a stronger and brighter future for Asian Americans as a whole. My personal respect goes out to you and I wish great success for KACL-NE and the countless Korean Americans who benefit from it.

Sincerely,  
Leland Cheung

---

CITY HALL, CAMBRIDGE, MASSACHUSETTS 02139  
(617) 349-4280 FAX: (617) 349-4287 TTY/TDD: (617) 349-4242 EMAIL: lcheung@cambridgema.gov  
www.lelandcheung.com

## 이민길

한국집을 떠나 나선 이민길  
생각해보면 지나온 멀었던 길

기대와 희망으로 훌쩍 떠났던 초행길따라  
앞만보고 살았던 바보 같은 인생길

돌아갈 수도 후회할수도  
아파 누울수도 없던 길  
번갯불에 콩 볶듯 달음박질했던 길

삶의 그림자마저 지쳐  
날 쫓아올수 없을 만큼 바빴던  
이민자의 땀내음 배인 먼지 나던길

자연의 아름다움과 삶의 의미마저 모른채  
생명의 담보한채로 두눈 가리고  
외출타던 아찔한 그 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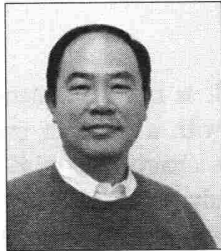
이제는 험덕거리는 숨결로  
삶의 끝자락에서  
꽃이 피고 지는 것을 마음으로 보며

인생길 겨울의 문턱에 서서  
내 자신에게 너무 가혹한 날 후회해 보며

끝이 저만큼 보이는 남은길  
꼭 해 보고 싶은 일  
꼭 가고 싶은 곳  
꼭 해주고 싶던 말들을 차분하게 음미하며

아름답게 마무리하여 보고싶은  
이민자의 보따리를 다 내려놓고  
마지막 길에 서서  
약해져 가는 심장의 소리를 들으며  
종착역을 바라본다.

『노을의 언덕에서』



**박필수** 시인은...  
1982년 보스톤에 도미하여  
NE시민협회이사로 봉사하고  
2010년에 순수문학 등단하여  
2011년 "순수문학회"  
우수시인상을 수상하고  
현재 세딸을 둔 자영업자이다.  
시집으로 "노을의 언덕에서"가  
2010년에 출간되었다.



김성군이시장은 성균관 대학교, 매사추세츠 주립대를 졸업하고 Suffolk Univ. Law School을 졸업한 후 현재 김성군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1988년부터 지금까지 주대법원에서 한국어 번역 및 통역관으로, 현재 Mass. Asian-American Commission의 자문위원으로 봉사하고 있고, 뉴잉글랜드 한인회부와 보스톤 코리아에 십 여년에 걸쳐 법률칼럼을 연속 연재하고 있으며, 또한 과학자기술협회, NE한국학교및 노인대학에서 여러차례 법률강좌도 담당한 바 있다.

# 시민협회 활동을 통한 정치력 신장

●이사장/ 김 성 군

시민협회가 1990년에 창립 되어 지난 20년 동안, 지역공동체 한인의 시민권 취득과 정치 참여 차세대 정치인턴 장학사업 한인과 소수민족의 민권신장에 도움을 주는 정치인을 돕는 모금 활동을 통한 우리의 정치력 신장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It is with a sense of pride to report as chairperson of KACL, particularly in this 21st anniversary KACL Journal. KACL is a platform of community services, civic engagement by the Korean-American minority, and uplifting political empowerment of our citizens. In summary of the past year 2011, KACL

2011년을 돌아보면, “정치인턴 장학사업”을 통하여 두 명의 대학생 인턴을 배출하였고, 이번 저널에 기재된 에세이에도 기재되었듯이 박성태 (브랜디스 대학)군은 매사추세츠 주지사 사무실에서, 그리고 윤수미 (조지와싱턴 대학)양은 존 케리 연방상원위원 사무실에서 성공적이고 의미있는 인턴쉽을 끝내는 결실이 있었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예년보다 더 많은 지원자가 인턴쉽 프로그램에 신청하여, CRYSTAL JANG (Boston University); RYAN KANG (Princeton University); 그리고 EUNICE ROH (Vassar College) 총 세명이며, 모두 이곳 보스톤지역에서 배출되어 엄선된, 아주 우수한 미래의 꿈나무들입니다. 그리고 이미 저희협회가 수백명의 시민권자를 배출한 “시민권 취득 워크샵”을 통하여 지난여름에도 영주권자 30여명이 시민권 신청을 끝내었습니다. 또한, 저희 시민협회가 성공적인 모금과 지원활동을 벌였던 캠임브리지 시의원, LELAND CHEUNG은 가장 많은 득

continued to focus on our time-honored activities: first, through our scholarship funds, our two (2) political interns successfully completed the “Summer Internship Program”: Sungtae Park (Brandeis University) at Massachusetts Governor’s Office; and Soo Mee Yoon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at US Senator John Kerry’s Office. In this upcoming Summer of 2012, our three (3) more interns will have their invaluable experience in the government and political offices. Second, this year as well KACL volunteers held a workshop to assist over 30 US Permanent Resident to apply for the Citizenship via “Citizenship Workshop Program”. Third, KACL had a fundraising event for the reelection of City Councilor Leland Cheung ?



표를 한 아시안계 재선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실에만 너무 급급하게 살다보면, 도대체 한인의 정치력신장을 어디에서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의 미래를 생각하면 무엇을 해야 할지 해답이 선명하며, 더욱 힘써 미국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역공동체 의식이 수반된 지역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절실합니다. 성숙된 의식과 참여 없이는, 우리의 정치력신장은 절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관심과 참여만이 우리의 정당한 권익을 지킬 수 있고, 미래의 한인 정치인과 지도자를 키우게 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 안목에서 튼튼한 정치력 기반이란, 미약하고 부족하지만 이미 조직된 저희 시민협회 활동에 동참하고 활성화하는 것이라 확신합니다.

KACL미션을 성취하기위해, KACL활동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전반적인 미국동포사회에 만연된 "정치 무관심"에서 벗어나,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더 많은 자녀가 정부, 공공분야, 선거직에서 일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미국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접적인 정치력신장은 투표권을 철저히 행사하거나 정치헌금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 입니다. 또한, 한인시민협회를 통한 시민운동이 이러한 정치력신장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자산이라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기존 이사님들의 지속적인 도움과, 올해에도 신임이사님으로 김한나, 박영찬, 이문항님께서 선임되어 적극 봉사하시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사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봉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다 활발한 활동을 통해, 더 많은 성과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KACL저널에 광고를 통하여 협조해주신 광고주 여러분 그리고 2012년 시민협회저널이 나오기까지 편집장을 맡으신 이기표 이사님, 저널 감수로 봉사해주신 김문소 전이사장님, 발간인 이경해 회장님, 더욱 더 중요하게는 저희 단체를 위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어려운 시민운동에 동참하시는 시민협회 회원과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Song Kun Kim, Chairperson, graduated from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nd Suffolk Univ. Law School. He was admitted to the Massachusetts Bar in 1994; he now runs his own law practice in Stoneham, Massachusetts. He has been working as a Court Korean/English Interpreter at Mass. Supreme Judicial Court since 1988. He also serves APAAC as a board member, and Massachusetts Asian American Commission as a Advisory Board Member. He has contributed law columns regularly to Korean Society of New England for many years, and delivers several lectures on immigration and personal injury laws for the Korean-American community.

incumbent serving City of Cambridge, who won with most votes in the election.

In somewhat indifferent mood in the American politics, it is true for many Korean-Americans in particular to sideline with no concrete agenda. In this non-participatory mood, our engagement of political cause seems to be less important in our daily life. But I firmly believe that our political right as minority only gets worse without our proactive involvement. It is more so for our future generation of Korean-American society. It is time ever more to use our resources and create a world of activism to bring positive and progressive change in our Korean-American political voice. We must understand that by participating in American politics, local and national, we help not only us but also our young children aspiring to be leaders in every corner in this country. It is upon us to be a "stepping stone" for our future generation. To sit idle without action is a worst choice, and we are a stumbling block for our kids.

In the line of our mission of KACL, I urge you to participate and learn more about KACL activities. We have to commit ourselves to use our energies to change the indifference in the American politics. We need more numbers of Korean-Americans working for governments, public sectors, and elected positions in the United States. To this end, we have to mobilize our political voices not only by casting ballots but also by way of the donations to the politicians to fight for our political issues. There are many ways KACL and you can do for the best of our future generation. KACL is a great instrument and facilitator in empowering the Korean-Americans in the New England area.

In this coming year, as incoming board of directors, I wholeheartedly welcome Hanna Kim, Esq., Young Chan Park, DDM, and Moon Hang Lee. I am sure we will be benefited from their qualifications, passion and commit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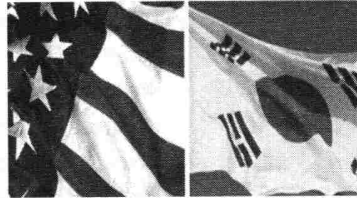
On behalf of KACL, I must extend our gratitude for the continuing support from our journal advertisers even in this tough U.S. economy. Especially, I thank Keeyoung Lee ? our editor-in-chief, and without his sacrifice it was impossible to publish. I also thank Kyunghae Kay Lee as publisher and Dr. Moon So Kim as editorial adviser. Besides and most of all, I appreciate our KACL members' continuous support and volunteerism to walk together toward our KACL mission.



Professor Yoo-Taek L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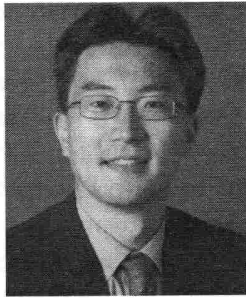
● Education  
B.A., Hong-Ik University, Korea  
M.S. – MIS, Boston University  
M.B.A., Boston University  
D.B.A., Boston University

● Expertise  
Supply Chain Management, Operations Strategy,  
Corporate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ial Innovation, Fact-based  
Management



# The Ball is in Our Court Now!

한미 FTA 성공, 이제 우리 손에 달려 있다



**이유탉 교수** 현재 보스턴소재 엠마누엘대학 경영/경제학부 부교수이며, 회사경영전략/기업가정신의 혁신 분야에서 경영자문 전문가로 일하고 있다. 다수의 경영학관련 논문을 집필하였고, 중소기업 (SMEs)이 전세계 확장사업을 위한 전략을 돕는 INKE 보스턴지부를 관할하고 있다. 뱁스대학 경영대 조교수로 한국기업가 정신과 경영전략 연구소에서 소장을 역임하였으며, 보스턴대학에서 MIS석사와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Professor YOO-TAEK LEE has many years of experience in teaching, scholarly research, and consulting. Currently, he is an associate professor in the Management and Economics Department at Emmanuel College. Prof. Lee also a chair of International Network of Korean Entrepreneurs Boston branch office supporting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MEs) for their global expansion strategy. Prior to join Emmanuel College, Professor Lee taught at Babson College as an assistant professor and served as a faculty director of Korea Entrepreneurship and Management Research Lab. at Babson College.

**한미 FTA**에 관련된 글을 써달라는 제안 받고 두 가지 문제로 많이 망설였습니다. 우선 필자가 국제통상전문가도 아니고 국제경제를 공부한 경제학자도 아닌 국제 공급망 관리(Global Supply Chains) 공부하고, 아직도 공부할 것이 많은 경영학자이기 때문 입니다. 그리고 최근 FTA관련 이슈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필자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에 부담을 가진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직장생활 중 미국으로 유학와서 학위를 마치고, 미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대학의 경영학 교수로 재직하는 한 사람으로써, 한국과 미국이 합의한 자유무역협정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하고 또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고민해 봐야겠다는 생각에 겁도 없이 글을 쓰기로 합니다. 내용을 공부하고 또 생각을 정리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글을 씁니다.

**When** I was asked to write an article about Korea and United States Free Trade Agreement (KORUS FTA), I hesitated to accept it at first, mainly because of two reasons. First, I am a business management scholar studying about Global Supply Chains, neither an international trade expert nor an economist. Second, both politically and socially, the KORUS FTA is an extremely sensitive subject that I need to be very careful in expressing my opinion. However, as a business professor having lived in both countries, I have decided to share my view, because it is also important for me to understand what FTA between Korea and United States is about and what it means to me. I believe that this article will be a great opportunity for me to explore the details and organize my thoughts on th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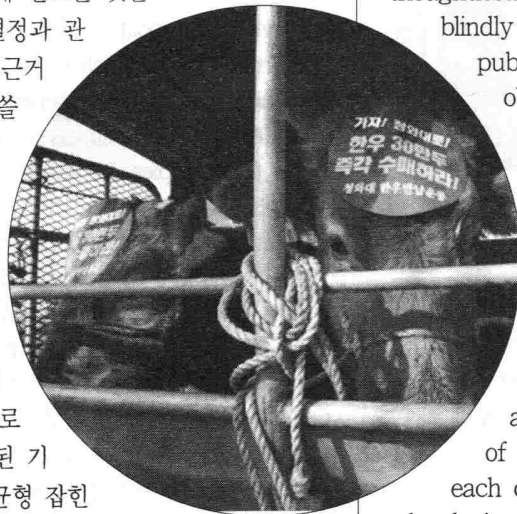
## 여론 보다는 사실 (Fact)

Let's Focus on the Fact rather than Public Opinion

사실, 필자는 여론이라는 것은 정치하는 분들에게는 중요하겠지만,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여론보다는 사실(fact)이 무엇 인지를 파악하는데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 한다. 종종 우리가 현실에서 볼 수 있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여론이 형성되거나, 사실과 동떨어져 여론이 또 다른 여론을 낳거나,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형성되는 여론에 휩쓸리는 악순환의 고리는 끊는 방법은 우리가 객관적인 사실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 하려고 노력하는데서 찾을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한미 FTA관련하여 형성되는 여론들의 근거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근거들이 객관적인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인지 먼저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한다. 당연히 대부분의 의사결정에는 기회도 있고 위험이 있기 마련이다. 기회를 크게 보는 사람은 찬성을 할 것이고, 위험을 크게 보는 사람은 반대를 하게 마련이다.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무작정 기회만을 부풀려 보거나 위험만을 크게 강조하는 경우나, 더 나아가 기회를 부풀리거나 위험을 강조하는 여론의 한편에서 그것을 더 크게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의사결정과 관련된 포괄적인 내용을 사실에 근거하여 이해하기 전에 여론에 휩쓸리는 것은 이제 선진 국민으로서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 인것 같다.

개인적으로 한미 FTA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게도 큰 의미가 있는 국가 간의 매우 복잡한 국제적 협정이므로 당연히 그 협정을 발생될 예측된 기회와 예상되는 위험에 근거한 균형 잡힌 여론이 반듯이 형성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한다. 그리고 그 여론은 서로의 입장을 주장하기 위해 세를 불리는 여론형성이 아니라, 진정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고 우리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입장에서 서로가 알고 있는 전문적이 지식들을 공유하고 또 기회를 극대화 시키면서 위험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토론의 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 한다. 최근 한국에서 한미 FTA관련한 여론들이 다



subject, I hope the readers are also deeply interested in the topic and find this article useful and informative.

## Let's Focus on the Fact rather than Public Opinion

A public opinion is important to politicians, but (as an academic), I find it more important to understand and be interested in the fact. In real world, in order to break vicious cycles of nonfactual public opinions we have to find and objectively understand the facts.

In these regards, it is critical to examine the FTA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ith an unbiased eye, analyzing where those recent FTA-related public opinions are from, and whether those opinions are based on facts. In general, making a decision carries both opportunity and risk. Certainly, those seeing more opportunities in a particular decision will tend to support it, while those seeing more risks will oppose it. Then the problem arises when supporters thoughtlessly exaggerate the opportunities or dissenters blindly emphasize the risks by influencing the public opinions which often lack facts and objectivity. As citizens of a developed country, we need to avoid being easily swayed by nonfactual public opin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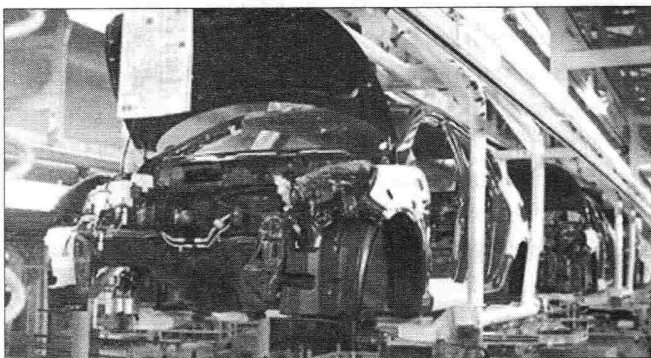
I believe the FTA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s a potentially critical and complex international agreement for both countries. Therefore, balanced public opinions about opportunities and risks based on facts and careful analyses need to be developed. Also, instead of the public forming opinions just to argue each other's positions, they should focus on developing a forum for sharing and discussing professional knowledge and information that can maximize opportunities and minimize risks for the country and its people for future generations. Recently, I've been concerned that South Koreans have had FTA-related confrontations of public opinions, but at the same time, I am certain that those conflicts will be wisely resolved.

시 대결구도로 형성되는 것에 조금의 우려를 가지고 있지만, 현명한 한국 국민들이 반드시 발전적인 방향으로 잘 해결할 것으로 믿고 싶다.

## 한미 FTA란?

What is FTA between Korea and United States?

FTA (Free Trade Agreement)란 협약 당사국간 간 상품,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등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증진을 도모하는 국제무역협정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한미 FTA는 한국과 미국 간에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여 상호간 교역을 증진하는데 그 주 목적을 두고 있다. 하지만, 한미 FTA는 상호간 교역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경제협력이라는 의미 이외에도 남북관계, 또한 급속히 성장하는 중국과 아직 경제적인 막강한 세력을 가진 일본과



의 의 사이에 위치한 지정학적, 정치적, 안보적인 측면이 동시에 고려되고 있어 그 복잡성을 더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의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중국의 성장으로 인한 아시아에서 그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볼수 있다. 본인은 정치학자도 아니고 안보 전문가도 아니니, 이부분에 대한 저의 생각은 본 글에서는 생략 하도록 하겠다.

FTA라는 국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내용을 매우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자유무역을 위한 국가 간의 협정은 1947 제네바에서 23개국이 모여 시작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인 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라는 조약이 그 근간이 되고, 그 제한성을 보완하기 위해 1994년 세계무역기구인, World Trade Organization (WTO)를 설립하고 국제무역을 확대시키려는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What is FTA between Korea and United States?

An FTA (Free Trade Agreement) is defined as a treaty between two or more countries to establish a free trade area where commerce in goods and services can be conducted across their common borders without tariffs or hindrances, but (in contrast to a common market) capital or labor may not move freely, and member countries usually impose a uniform tariff on trade with non-member countries. Accordingly, the main purpose of the FTA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s to enhance international trade by easing the tariff and nontariff barriers between the two countries. However, this FTA has implications far beyond just economic collaborations of the two countries, as the agreement needs to be understood in the context of a complex set of issues, including South Korea's relationships with North Korea as well as geopolitical, economic and regional security implications involving fast growing China in the west and an economic superpower Japan in the east. These issues are also critical to the United States as the US's economic and political influences in the region have been steadily diminishing with China's growing presence. Above mentioned factors are important to consider, but as business management scholar, I will leave these topics for politicians and national security experts.

In 1947, 23 countries gathered in Geneva seeking an international agreement dealing with cross border trades. The meeting resulted in the establishment of 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In 1994, in order for the countries to protect the GATT covenants, the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was organized. While the WTO is an organization to enforce general covenants of international trades around the world, an FTA is a set of specific covenants within the Regional Trade Agreement between two countries. The Regional Trade Agreement is classified into FTA, Customs Union, Common Market, and Single Market, based on the scope and scale of the agreement. Before the agreement with the United States, South Korea had signed FTAs with 4 countries and 3 regional multi-

WTO는 다수의 국가가 자유무역을 위해 노력하는 다자간의 협약인 체제인 반면에, FTA는 특정 국가 혹은 경제연합체간의 1:1 협약에 중점을 두고 있는 지역무역협정 (Regional Trade Agreement)의 일환이라 하겠다. 지역무역 협정은 일반적으로 그 단계에 따라 1) 자유무역협정(FTA), 2) 관세동맹(Customs Union), 3) 공동시장(Common Market), 그리고 4) 단일시장(Single Market)으로 구분 된다. 한국은 지난 2003년 칠레와의 FTA를 체결한 이후 2011 현재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7개국과 FTA를 체결한 상태이고, 지난해 11월 한미 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8번째 FTA가 체결되어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태이다. WTO 보고에 따르면, 1960년부터 1995년 이전까지 세계적으로 총 53건에 불과하던 지역무역협정 체결수가 1995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11년 10월 현재 약 310건에 달한다고 한다.

WTO라는 국제무역기구를 통한 다자간의 자유무역을 위한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FTA라는 지역무역협정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냉전시대의 종식과 함께, 미국주도의 경제 체제가 다변화 되는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WTO 주도의 협상이 다수의 회원국 간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 합의를 이끌어 내기위한 정치적, 경제적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FTA가 선호되는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한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한미 FTA관련된 입장차이만을 보더라도, 약 150여 개국이 회원국으로 있는 WTO주도의 다자간 협상이 얼마나 어려울지는 가히 짐작할 만 하겠다.

### 기회와 위험의 공존

#### Coexistence of Opportunity and Risk

필자는 시장경제를 공부한 사람으로써, 일단 순서와 시간, 그리고 방법의 문제일 뿐이지 이미 우리는 글로벌 시장경제에서의 경쟁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치열한 경쟁에 노출될 것이라는 견지에서, 한미 FTA는 기회와 위험이 함께 공존하는 이미 발생된 미래라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가장 앞선다고 하겠습니다.

한미 FTA가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가, 한국이 장기적이고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준비 했건, 미국이라는 큰 힘에 이끌려 여기까지 왔건, 큰 이변이 없는 한, 이제 한미 FTA는 국회 비준을 마치고 조만간 발효될 예정인 것이 현실이고, 그 결과로 인해 국가, 대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국민들에게 각각 많은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제부터라고 정신을 똑 바로 차

national trading unions, including Chile, Singapore, EFTA, ASEAN, India, EU, and Peru. In November 2011, the National Assembly of South Korea ratified the FTA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making it the 8th agreement to date. According to the WTO reports only 53 FTAs had been signed before 1995, but the number of agreements has significantly increased since 1995, with 310 FTAs in effect today.

While the end of the Cold War Era and the diversification of the US-led global economic system could be some of the growth drivers of the FTAs, one of the fundamental reasons for the proliferation of the FTAs today, despite the efforts from the WTO to encourage free trades across multiple countries, could be that the countries prefer relatively cheaper and politically more viable FTA option over WTO sponsored negotiations that present substantial differences of opinions among member countries. Given how challenging the FTA negotiations were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e can imagine the difficulties facing 150 WTO member countries trying to agree on a particular topic.

### Coexistence of Opportunity and Risk

It is safe to assume that South Korea is an integral part of the global market economy, and it is one of the major competitors in the global market. It is a matter of time before South Korea will be exposed to even more fierce global competition, and the FTA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could be viewed as an early glimpse of the future where both opportunities and risks coexist. Personally, I view now to be the time for us to wake up and be ready for what is ahead.

Whether the FTA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as brought by Korea's long-term strategy or US's strong influence over Korea, barring a major surprise, the KORUS FTA will soon be ratified and be in effect. As a result, I expect the FTA to bring various changes, and they will impact the country, the large corporations, the small and mid-size companies, and each individual. If we are not ready to face this

리지 않으면, 정말 극단적인 위험을 크게 보는 이들의 주장이 현실이 될 수도 있기 때문 입니다.

경쟁의 측면에서 본다면, 국가는 시장이 보다 투명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운영될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자유무역의 비판 대상중 하나인 부의 양극화 문제를

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 인프라를 새로이 구축해야 하며,

교역 상대국에 비해 경쟁력이 없어 피해를 입게될 산업을 어떻게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대기업은 그동안

비교적 보호받던 국내시장에서의 경쟁우위

가 소멸되고, 이제는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과 동일한 조건

에서 경쟁을 해야 하므로 국내시장에서의 경쟁도 국제시장에서의 경쟁에 못지않은 추가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쟁은 기존의 국내시장중심 경쟁구도에서, 예상되어지는 미국 중소기업들의 한국 시장진출로 자연스럽게 국내시장과 국제시장 구분 없이 국제경쟁구도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기존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새로운 역량을 개발하는데 전력투구를 해야 하겠습니까.

국민 개개인들의 입장에서도 종사하는 산업에 따라 고용이 증가하는 산업과 함께 고용이 감소되는 산업이 등장하게 되고, 강력한 노동조합을 통해 보호를 받던 노동 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 되어 집니다. 무엇보다도, 개개인이 국제경쟁에 노출되는 만큼 새로운 환경에서도 지속적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교육을 받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보통 고등교육을 받고 사회에 진출하면 재 교육에 대한 기회를 박탈당하거나 포기할 수 밖에 없는 노동 환경에서는 새로운 환경에서 뛰어난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회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 된다.

물론 이러한 측면을 미국 노동계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 한다. 산업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미국의 노동계에



reality, the opinions of skeptics and pessimists may turn into a reality.

From the competition perspective,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revamp its policy to ensure an efficient and transparent market, establish a new social infrastructure that can reverse the growing disparity of wealth, and devise specific strategic policies to upgrade industries that will struggle against foreign competition in the post-FTA environment. For large

corporations, they will lose much of the protection they have enjoyed in the domestic market, as

they will be facing competition from diversified foreign companies. This paradigm shift in the

domestic market will require large Korean corporations to pay more attention to their domestic strategy. For small and mid-size

companies, the arrival of foreign companies will require them to think more globally as they

will need to be ready to handle both domestic and foreign competition at the same time. These

small and mid-size companies will not only need to strengthen their current core competencies but also

develop new capabilities that will keep them ahead of competition. For individuals, depending on the industry

they are part of, some will see an increase in demand for their skills while others will face reduction in job

opportunities. Those protected by powerful unions may see substantial changes in benefits and protections from

the unions. Above all, individuals will need to focus on receiving education that will keep them competitive in

this changing environment. Because it is often difficult for an average graduates from their initial

academic/occupational institution to return to school after spending time at workplaces, the government and

the society may need to support and cooperate with individuals seeking further job training and education.

Of course, the situations will be similar in the United State's labor market, and we all can

acknowledge the concerns among American workers from the news that the United States labor force could

be reduced due to FTA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n this sense, both South Korea and

United States will enter into a new stage of competition, and who will win and benefit from new competition will depend on how each side builds its capabilities and how each will compete with those new



서도 한미 FTA의 여파로 미국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이나 미국이나 경쟁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것이 사실이고, 누가 이 새로운 경쟁에서 보다 큰 혜택을 받을 것인가는 어떤 경쟁력으로 어떻게 경쟁하는가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협상과정에서 경험의 부족으로 혹은 힘의 원리에 관철되지 못한 아쉬웠던 점들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프로세스를 어떻게 고칠 것인가에 대한 생각과, 결국 개인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라는 생각으로 한미 FTA가 우리 개인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를 한번쯤은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 고칠것은 고쳐야 하겠지만 너무 집착하지 말자

Fix the Problem but Do not Cling to the Past

한미 FTA 찬반 여론의 중심에는 소위 독소조항이라는 것이 있다. 우선 '독소조항' 라는 단어자체가 매우 무섭게 들린다. 물론 경우에 따라 국가 경제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사안들이라 그만큼 중요하고 더 깊이 고민해야 할 조항들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객관적 사실 관계를 따지기 전에, 앞에서 우려했던 것과 같이 여론에 불필요한 편견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조항 하나하나 자체는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의견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필자는 각각의 조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다만, 독소조항 관련된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필자는 글을 쓰면서, 과연 미국에서도 소위 한국에서 얘기하는 '독소조항' 과 같은 것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 자료를 찾아 보았다. 흥미롭게도 한미FTA에 우려를 표명하는 미국 측 인사들도 그 '독소조항' 과 비슷한 내용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 했다.

우선 놀랍게도 한미FTA를 반대하는 미국 측 인사들도 그 협상이 미국의 주권과 통치권을 침해할 수 있는 위협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었다. 또한, 의료, 교육, 환경등 공공부분에서의 정부의 통제력이 상실되거나 약화될 것에 대한 우려와 미국의 연방법 그리고 주법들과의 충돌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예: [www.uskoreafta.org](http://www.uskoreafta.org)). 추가 협상을 통해 미국이 보다 많은 것을 챙겼다고 하는 자동차 산업에서도 최초의 협상 할 때 보다는 반대의 목소리가 수그러들었지만, 아직 과연 추가협상을 통해 바뀌어 진 최종 협상안으로도 과연 미국자동차 산업이 한미 FTA에서 승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는 기사도 있었고 ([www.autoobserver.com](http://www.autoobserver.com)), 미국의 싱크탱크 중 하나인 The

capabilities. If there were regrets in the negotiations phase due to lack of experience and leverage, we all need to consider how to change the process going forward and what the FTA between Korea and United States means to each of us, being mindful of the fact that national competitiveness stems from competitiveness of each individual.

### Fix the Problem but Do not Cling to the Past

The 'poison clause' is at the center of the debates on the FTA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e poison clause sounds ominous, and it may be an appropriate description, given the potential risk the elements of the clause could have on the overall economy, but in order to avoid prejudiced reporting by media and loss of objectivity in public opinion, we must carefully approach the topic. Because each item of the clause requires expert's analyses and review, I will not get into detailed discussions of the clause in this article.

But, there is one interesting fact about poisonous clause. While I was writing this article, I searched for references about poisonous clause in the United States, similar to the Korean poisonous clause mentioned above. Interestingly enough, people in United States are also concerned about FTA between Korea and United States, and they express similar concerns about poisonous clause.

Surprisingly, the US critics of the FTA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lso point out the risk that the KORUS FTA could infringe on the sovereign powers of the United States). Additionally, there are concerns in the United States that the KORUS FTA could undermine the US government's regulatory authority in healthcare, education, environment and other public sectors, as well as the FTA clashing with both federal and state laws. (for more information, go to [www.uskoreafta.org](http://www.uskoreafta.org)). Although the US auto industry's criticism towards the initial proposals of the KORUS FTA has calmed down since the subsequent negotiations appeared to be more favorable for the US auto manufacturers, recent articles questioning the perceived advantages for the US automakers under the

Heritage Foundation에서도 10 Myths about KORUS and free trade agreement란 제목의 리포트를 통해 한미FTA에 우려를 표명하는 사람들의 10가지 조항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 근로자들이 직장을 잃을 것을 걱정하는 것으로 부터, 앞서 언급한 미국의 주권에 위배될 수 있는 사례에 대한 우려,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특권, 그리고 심지어는 한미 FTA가 자유무역을 확대하는데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와 미국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한국에서 우려하는 독소조항과 유사한 사항에 대해서 미국 측의 반대론자들도 그들의 입장에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그것들은 일방적으로 특정 협상 당사



자에게 유익하도록 일방적으로 계획 되었다기 보다는,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따라 그리고 최악의 상황에 처했을 때 우려할 수 있는 양국 모두에게 잠재적 위험들이 될수 있는 사항들이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이런 조항들은 상세한 검토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거나 미연에 방지하는 는 노력이 필요하겠고, 그런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제도와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하겠다.

###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 What should we have to do now?

필자가 함께 공부한 스승님께 작년 말에 받은 이메일에 첨부된 2011년 11월 12일자 The Economist의 기사를 보니, "What do you do when you reach the top"이라는 제목으로 1960년대에 최빈국에 속했던 한국이 오늘날 성공의 교과서로 불리워지고

KORUS FTA can still be found (www.autoobserver.com). Even the Heritage Foundation, one of the major US think tanks, has published a report titled 'Ten Myths about KORUS Free Trade Agreement', in an attempt to dispel the critics' 10-point concerns regarding the agreement. The US critics of the KORUS FTA believe the agreement may lead to an increase in unemployment rate in the US labor market, above mentioned loss of the US sovereign powers in some cases, special treatment of foreign investments in the US market, and even the possibilities of the KORUS FTA undermining the expansion of global free trades leading to generally negative impact on the US economy.

Based on the negative opinions regarding poisonous clauses, bo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ppear to be in the same boat. Overall, these clauses are not designed to benefit only the specific parties involved in negotiations, but they only serve as potential risk factors to the agreements, depending on how the agreements are executed and what could happen in the worst case scenario. Therefore, bo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need to thoroughly review these clauses and both countries need to continuously manage and prevent risk factors, while revamping the policies and competitiveness to minimize exposure to potential risks.

### What should we have to do now?

Last year, I received an e-mail from one of my former professors who had attached his recently published article in The Economist titled "What do you do when you reach the top". The article was about how South Korean went from one of the poorest countries in the world in the 1960s to the textbook of success today. Towards the end of the article, the author noted that despite Koreans' creativity and ability to innovate, having invented the printing press some two centuries prior to Gutenberg's invention, Koreans are often unaware of their significant potential in today's global economy.

While South Korea's economic growth is often referred as 'the Miracle of the Han River', I would like to view it more as well-deserved prizes of hard work by the Korean government and its people,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 기사의 마지막 부분에서, 한국은 구텐베르크의 그것보다 약 2 세기나 앞서 금속 활자를 만든 창조성과 혁신능력을 가진 국가임을 얘기하며, 한국이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신장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지 한국인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는 의미있는 내용의 기사를 읽었습니다.

흔히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우는 한국의 경제성장은 더 이상 기적으로만 보기보다는, 우리 조상으로 부터 전해진 창의성, 우리 선배세대들의 피땀 어린 노력을 통해 구체적인 경제발전 계획과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려는 Entrepreneurship (기업가정신),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만들어낸 대한민국의 국가경제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결과로 보고 싶다. 물론 아직도 해결해야 할 이슈들 (성장과 분배, 공정 사회와 부패, 남북 관계 등) 이 많은 시스템이지만, 이를 보완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 새로운 경쟁 환경을 준비하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 생각 한다.

경영학의 그루인 피터 드러커교수는 많은 사람들이 단점을 가리고 이를 극복하려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여 장점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데 에너지가 모자라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 했다. 이는 단점을 그냥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장점에 보다 많은 에너지를 할당 하라는 조언이라고 생각 한다. 한미 FTA는 장단점을 모두가진 국제협상인 것이 분명 하다. 이것은 양 협정 당사국들이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떠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국가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하는 국가도 있을 수 있다. 우리는 이제 협상과정에서 잘못되었거나 소홀했던 부분을 철저히 보완하는 일과 함께, 새로운 경쟁 구도에서 어떻게 더 많은 기회들을 창출하고 그 기회들을 국민들에게 보다 균형있게 나누어 주느냐에 따라 찬성론자들이 얘기하는 장미 빛 목표들을 달성하느냐 아니면 반대론자들이 얘기하는 처절한 실패의 길로 접어드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것 같다.

약 반세기 만에 이룩한 대한민국의 성장은 기적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 이었습니다. 한미 FTA가 현재까지 가장 포괄적이고 비중이 큰 협정임은 분명하지만, 우리의 선택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가느냐, 그리고 다양한 국가들과의 무역협정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해 나가는가 등의 의사결정으로 지속될 것이다. 과정상에 실망스러운 부분도 많았지만, 오늘 우리가 하는 일들이 이미 발생한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초석이라는 마음으로 필자를 포함한 각자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발전 시켜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간절하다.

leveraging creativities of its rich history, growth earned by blood and sweat of our previous generations, and bold entrepreneurship spirit of each individual. Of course there is still a long way to go to solve many outstanding issues (growth and wealth distribution, fair society without corruption, South-North Korean relations, etc), but in order to be ready for the new competitive environment, I believe now is the time for us to upgrade this incomplete system by filling the gaps and improving the processes.

Peter Drucker, a guru of management sciences, once pointed out that most people spend too much time and energy trying to hide and overcome their weaknesses that they end up with not enough energy to develop and improve their strengths. I interpret his observation as allocating more energy to focus on one's strengths rather than disregarding one's weaknesses. The FTA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s an international agreement with positives and negatives for both countries.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one country may benefit more than the other country. Going forward, our tasks include rectifying mistakes and short-falls present during negotiations and creating and distributing new found opportunities to people in a balanced manner. Depending on how we accomplish these tasks ahead, we could either bring the rosy future spoken by the optimists or the dark future predicted by the skept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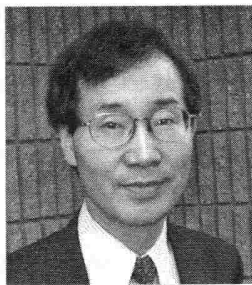
South Korea's brilliant economic growth over the past 50 years was not a miracle but a choice of its people. Surely the KORUS FTA is the most significant and comprehensive agreement in Korea's economic history to date, but this is only the beginning. Now we are faced with successfully managing and executing the treaty while building a portfolio of trade treaties with various countries around the world. The process we took to get here could have been more efficient and better executed, but now that the first stone of the future has been cast, I look forward in earnest desire to continuously improve our competitive strengths and vision.

<http://www.businessdictionary.com/definition/free-trade-agreement.html>

# 2012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하여 2012 U. S. Election

미국 대통령 선거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관심을 갖는데,  
이는 미국이 가진 큰 영향력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미국 대통령 선거 절차에 대한 설명과  
2012년 대통령 후보의 정책 비교 및 선거 분석을 해 보려고 한다

글/ 최홍균 이사



최홍균 박사는 서울대학교에서 학사, KAIST에서 석사,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에서 전기공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Kopin Corporation에서 Chief Technology Officer로 일하고 있으며, 그 전에는 17년 동안 MIT Lincoln Laboratory에서 일했다. 최 박사는 시민협회에 초창기부터 참여하여 1998년부터 2000년까지 4대 회장으로 일했다.

Dr. Hong Kyun Choi received the BS degree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MS degree in Korean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Ph. D. degree from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all in electrical engineering. He is now Chief Technology Officer at Kopin Corporation. Prior to joining Kopin, he was working at MIT Lincoln Laboratory for 17 years. He joined the KACL-NE from its founding and served as its 4th President from 1998 to 2000.

**2012** 년 대통령 선거의 해가 되었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관심을 갖는데, 이는 미국이 가진 큰 영향력 때문이다.

도전자가 없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바락 오바마(Barack Hussein Obama) 현 대통령이 확정적이며, 공화당 후보는 아직 예비선거 도중이기 때문에 불확실하지만 미트 롬니(Mitt Romney)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유력하다. 현직 대통령의 재임 선거는 지난 3~4 년 동안의 업적에 대한 신임 투표의 성격이 강한데, 금년은 특히 높은 실업자 문제 등 경제 문제와 의료 개혁안 통과에 대한 평가,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글에서는 미국 대통령 선거 절차에 대한 설명과 2012년 대통령 후보의 정책 비교 및 선거 분석을 해 보려고 한다.

## 1. 대통령 후보 자격 및 투표인 자격

미국 헌법에 의하면 대통령은 35세 이상, 미국 영토에서 14년 이상 거주한 자연생 시민(natural born citizen)만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헌법에는 자연생 시민의 정의가 없으나 출생 당시 미국 시민으로 해석되며, 미국 영토에서 태어났거나 (부모가 외교관인 경우는 제외), 외국에서 태어났어도 두 부모가 모두 미국 시민이거나 또는 한 부모가 미국 시민이고 거주 조건이 충족된 경우가 해당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일부 보수 세력에서 제기했던 그의 출생에 대한 의문을 불식하기 위해 출생증명서를 작년에 공개하여야 했다.

선거권은 유권자 등록을 마친 미국 시민이 갖는다. 유권자 등록은 예비 선거나 본 선거 투표일보다 일정 기간 전에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선거 20일 전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 유권자 등록은 운전면허를 갱신할 때 Registry에서 할 수도 있고, 거주지 시청이나 Town Hall에 직접 가서 등록해도 된다. 또한 등록 서류를 작성하여 거주지 시청 또는 Town Hall에 우편으로 보내도 된다.

## 2. 대통령 선거 절차

대통령 선거는 각 정당의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예비 선거, 전당대회에서의 후보 확정, 후보들의 TV 토론, 대통령 선거, 그리고 선거인단(Electoral college)의 대통령 투표를 거쳐 이루어진다. 미국 정치는 Green Party 등 군소 정당이 존재하지만 오랫동안 공화당(Republican party)과 민주당(Democratic Party)이 주도해 오고 있다.

### 2.1 예비 선거

민주당 및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예비 선거에서 승리해야 한다. 예비 선거는 주에 따라 코커스(Caucus) 또는 프라이머리(Primary) 방식을 따른다. 코커스는 당원으로 등록된 사람들이 선거일에 지역별로 모여 각 대통령 후보를 대표하는 대의원(delegate)을 투표하는 방식이다. 이는 정당의 유자들이 대의원을 결정하던 전통이 발전된 형태인데 투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1960년에는 43개 주에서 코커스 방식을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약 10개 주에서만 사용하고 있다. 프라이머리는 유권자가 원하는 시간에 투표장에 가서 투표하는 방식인데 코커스에 비해 시간이 적게 든다. 프라이머리에서도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대의원을 선출한다. 주에 따라 대의원 배분 방식이 다른데, 일부 주에서는 최다 득표자가 대의원을 모두 차지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주에서는 투표율에 따라 배분한다.

금년 민주당 예비 선거에는 오바마에 반대하는 후보가 없다. 공화당은 처음에 12명의 후보자가 나와 경쟁하였으나 초반 예비 선거를 치른 후 롬니, 샌터럼(Rick Santorum) 전 펜실베이니아 상원의원, 깅그리치(Newt Gingrich) 전 하원의장, 폴(Ron Paul) 현 텍사스 하원의원 등 4명의 후보가 아직 남아 경쟁하고 있다.

2008년 대통령 후보로도 나왔던 롬니는 다른 후보에 비해 가장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으며 풍부한 자금력과 조직력을 바탕으로 선두 주자로 오래 인식되었다. 2012년 예비 선거에서 롬니는 아이오와, 뉴햄프셔, 사우스 캐롤라이나, 플로리다, 네바다 주에서 1위 또는 2위를 차지하여 기세를 높였지만, 콜로라도, 미네소타, 미주리 주의 예비선거에서는 샌터럼에 모두 져서 주춤하였다. 그러나 그 후 아리조나 주와 미시간 주에서 승리하여 다시 주도권을 잡은 롬니는 워싱턴 주

의 코커스에서 다시 승리하였고, 수퍼 화요일의 10개 주 중에서 중요한 오하이오 주를 포함해 6개 주에서 이겨 선두 주자를 유지하고 있다. 다른 후보들에 비해 정책면에서 본래 온건한 성향이었던 롬니는 보수성향의 공화당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점차 보수적으로 전향하였지만 공화당 보수층의 지지를 얻는 데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화당 예비 선거는 빨라도 4월이 지나야 후보가 결정될 것 같으며 최악의 경우는 전당대회에서 결정될 수도 있다. 그러나 대의원 수에서 다른 후보들에 상당히 앞서 있고, 강한 조직력과 풍부한 자금력을 갖춘 롬니가 공화당 대통령 후보에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 2.2 전당대회

대의원들은 전당대회(National Convention)에 모여 대통령 후보를 뽑는다. 공화당은 8월27일부터 8월 30일까지 플로리다 주의 탬파(Tampa)에서, 민주당은 9월 3일부터 7일까지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의 샬롯(Charlotte)에서 전당대회를 갖는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당선되기 위해서는 과반수인 2025명 이상의 대의원 지지가 필요하며, 공화당 후보는 1144명 이상이 필요하다.

전당대회에서는 대통령 후보의 정견을 주로 반영한 당의 강령(Party platform)을 채택하고, 부통령 후보를 선출하며, 마지막 날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고 후보의 수락 연설을 듣고 끝을 맺는다. 전당대회 동안 방송 언론의 집중 보도가 있기 때문에 전당대회 직후 후보의 지지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

### 2.3 유세 및 TV 토론

전당 대회가 끝나면 선거는 열을 더하게 되고 각 후보는 TV, 라디오, 신문 등에 자신의 장점과 상대 후보의 약점을 집중 홍보한다. 10월에 들어 대통령 후보들의 토론이 3번 정도 열리는데, 중요 TV 방송국에서 모두 중계하며 많은 미국 유권자들이 시청하기 때문에 이 토론의 결과가 대통령 당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 2.4 선거

대통령 선거는 매 4년마다 11월 첫째 화요일에 있다. 이날 또한 연방, 주 상·하원 의원의 선거도 같이 있다. 유권자는 투표소에 가서 대통령 후보에 투표를 한다. 그러나 미국 대통령 선거는 간접 선거이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는 각 주마다 경합하여 최다의 투표를 받은 후보가 그 주의 선거인단

(Electoral college)을 모두 차지한다. (예외로 메인과 네브라 스키 주에서는 주에서 최다수를 얻은 후보가 2명의 선거인단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각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최다수를 얻는 후보가 갖는다.) 따라서 2000년 대통령 선거에서 고어 (Al Gore) 후보의 경우와 같이 미국 전체에서 최다 투표를 얻었다고 해도 선거인단 수에서 지면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한다.

각 주의 선거인단 수는 상원의원과 하원의원 수를 합한 것과 같으며, 50개 주와 와싱턴 DC를 합하여 538명이다. 따라서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위해서는 선거인단 270명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하원의원의 수는 각 주의 인구 비례에 따르는데, 10년만에 실시하는 인구 조사(census)에 따라 숫자가 조정된다. 이에 비해 상원의원 수는 인구에 관계없이 2명씩이기 때문에 작은 주에 더 유리한 셈이다. 이는 헌법 제정 당시 미국이 연방 제도를 유지하고 큰 주가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배려를 했기 때문이다.

선거가 끝나면 대통령 당락이 대부분 금방 결정이 나지만 (2000년 선거의 경우 플로리다 주에서의 재 개표 소동으로 당선이 2주일 동안 보류된 적이 있다.) 공식적으로는 2달이 더 걸린다. 선거인단은 12월 17일에 각 주마다 모여 대통령과 부통령의 투표를 한다. 마지막으로 2013년 1월 6일 상·하원 공동으로 선거인단 개표를 하여 절대 다수 표(270표 이상)를 얻은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

## 2.5 대통령 취임

1933년 이후 대통령 취임식은 1월 20일에 있다. 당선자는 이날 대법원장에게 미국 헌법 2장 1조 8항에 있는 “나는 미국 대통령직을 충실히 수행하며, 최선을 다하여 미국 헌법을 보존, 보호, 수호할 것을 맹세합니다” 라는 선서를 함으로써 대통령에 취임한다.

## 3. 대통령 후보 비교

아직 공화당 후보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톰니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오바마와 톰니의 경력 및 정책을 아래에서 비교하려 한다.

### 3.1 바락 오바마

오바마는 1961년 하와이에서 케냐인 아버지와 미국 백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6살까지 하와이에서 자란 오바마는 이후 인도네시아에서 10살까지 지냈다. 하와이에 다시 돌아와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오바마는 1983년 콜롬비아 대학

에서 정치학 학사를 받았고 이후 시카고에서 지역 봉사활동을 하였다. 이어 오바마는 하버드 법대에 입학하여 하버드 법률 잡지(Harvard Law Review)의 회장(President)을 흑인 으로서는 처음으로 되었고 1991년 하버드 법대를 우등으로 졸업하였다. 졸업 후 시카고에 돌아와 자서전(Dreams from My Father)을 쓰고 시카고 법대에서 헌법학 강의를 하였으며 1996년 일리노이 주상원에 당선되었다. 2004년 봄 일리노이 민주당 연방상원의원 후보에 압도적으로 당선된 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주제 연설을 한 것이 큰 호응을 얻으며 유명해진 오바마는 2004년 연방상원의원에 당선되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기존 정치로부터의 변화”를 내세워 2008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당선된 오바마는 2008년 가을에 닥친 경제 위기에 힘입어 흑인 으로서는 처음으로 44대 미국 대통령에 압도적으로 당선되었다. 오바마의 인기가 도움이 되어 민주당은 상원과 하원에서 다수당이 되었고, 특히 상원에서는 회의 진행 방해 (filibuster)를 저지할 수 있는 60명을 차지하였다.

오바마는 임기 초에 대공황 이후 최대의 불경기를 맞아 경기 부양을 위해 7870억의 예산을 통과시켰으며, GM, Chrysler 자동차 회사들의 부도를 국가 주도로 구조 조정을 하여 회생시켰다. 오바마의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는 정치적으로는 많이 엇갈리지만 많은 경제학자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실업률이 오랫동안 높아서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하락하였다.

2008년 선거에서 민주당이 상, 하원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 하였지만 오바마는 공화당의 확실적인 반대에 부딪쳐 법안을 통과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거의 전국민을 의료 보험에 포함시키려는 개혁안에 대한 찬반 논란이 길어지고 공화당과의 대립이 심해짐에 따라 새로운 정치를 주창했던 이미지가 흐려졌다. 그러나 오바마는 진보 층의 오랜 숙원이었던 의료보험 개혁법을 공화당의 결사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 시켰다. 또한 경제 위기의 큰 원인으로 생각되던 Wall Street의 방만을 규제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2010년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낙선하였으며, 하원에서 다수당이 된 공화당은 예산, 국채 한도액 증가 등에서 오바마를 견제함으로써 마지막 순간에서야 위기를 면할 수 있었다.

이라크 전쟁을 반대했던 오바마는 2008년 선거에서 이라크 전쟁을 끝내겠다는 선거 공약을 했는데 2011년 말 모든 병력을 이라크에서 철수함으로써 이를 이행했다. 하지만 미군에 대한 치외법 권한에 대해 이라크 정부와 이견이 있어 이라크 군 훈련을 위해 미군을 이라크에 남겨두려던 당초

계획을 포기함으로써 이라크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하였다.

오바마는 선거 공약대로 아프가니스탄에는 파병 인원을 대폭 보강함으로써 상황을 반전시키려고 했으나 전황이 계획대로 잘 진전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2011년 파키스탄에 숨어있던 오사마 빈라덴을 특전사 병력을 파견하여 사살하였고 다른 많은 알케이다 지도자들을 사살함으로써 테러에 대한 전쟁에서는 큰 성과를 보였다.

### 3.2 미트 롬니

롬니는 1947년 미시간주에서 태어났으며 아버지는 전 미시간 주지사였다. 브리검 영 대학을 졸업하고 하버드 경영대학원과 법대를 졸업한 롬니는 경영 자문회사인 Boston Consulting Group에 취직하였고, 이어 Bain & Company에 취직하였다. 1984년 Bain Capital을 공동 설립하여 1998년까지 최고경영자로서 이를 아주 성공적으로 운영하였으며 개인적으로도 많은 돈을 벌었다 (현 재산이 약 2억 달러 추산).

롬니는 1994년 매사추세츠 주의 공화당 후보로 케네디에 대항해 연방상원의원에 출마했으나 실패하였다. 이후 다시 Bain Capital에 돌아가 일하던 중 1999년 동계 올림픽(2002년) 조직위원장을 맡았다. 롬니가 맡을 당시 올림픽 위원회는 예상 수입이 3800만달러 부족하여 올림픽 규모를 축소하는 안을 고려 중이었으며, 고위직에 있는 인사들이 뇌물과 관련이 있어 어려운 상태였다. 롬니는 지난 잘못을 인정하고, 예산을 삭감하고, 기업으로부터의 기부를 늘리고, 9.11 사

태로 인해 강화된 보안에 필요한 38억달러를 미국 연방정부로부터 보조 받는 등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2002년 롬니는 비정치인 출신으로 온건, 진보적 정책을 내세워 매사추세츠 주지사에 당선되었다. 취임 후 롬니는 30억달러로 예상되었던 재정 적자를 예산 삭감과 수수료 등의 인상을 통해 해결했다. 롬니는 또한 거의 전 주민들에게 의료보험을 의무적으로 들게 하는 의료보험법을 미국에서 처음으로 서명했다. 이 법은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여 연방법이 된 의료 보험과 비슷하여 보수 공화당원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대통령 출마를 생각하던 롬니는 4년의 임기를 마치고 주지사를 그만 두었다.

2008년 대통령 공화당 후보로 나온 롬니는 11개 주의 예비선거에서 승리하였으나 대의원 수에서 매케인(John McCain) 아리조나 상원의원에 많이 뒤져 매케인을 지지하고 포기하였다. 이후 롬니는 2012년 대통령 출마를 위해 계속 모금과 조직을 다져와 처음부터 선두 주자로 인식되었으며, 2012년 예비 선거에서는 많은 주에서 승리를 하여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 롬니는 보수 공화당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동성애, 동거, 낙태, 세금 등 여러 견해를 점차 보수적으로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수당원들의 지지를 받는 데 아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롬니가 독실한 몰몬교도인 점도 복음 기독교와 천주교도들로부터 지지를 받기 힘든 이유 중의 하나다.

[www.kccboston.org](http://www.kccboston.org)

주일미사: 오전 11시 30분  
 청년미사: 오후 4시 30분  
 평일미사: (목) 오후 7시 30분

예비자교리: (수) 오후 8시  
 주일학교: (일) 오전 10시 30분  
 한국학교: (일) 오후 1시 30분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BOSTON

# 보스톤 한인 천주교회

● 주임신부: 정광호 도미니코

● 보좌신부: 이준배 아브라함

617-558-2711

1518 Beacon Street, Waban, MA 02468

### 3.3 정책 비교

오바마와 롬니의 주요 정책을 아래 도표에 간단히 비교해 보았다.

	오바마	롬니
세금	연 백만불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인상. 부시 감세법 폐지. 기업 세율 28%로 감소.	근로 소득 세율을 20%씩 감소. 최소 세금 (alternative minimum tax) 폐지, 상속세 폐지. 기업 세율 25%로 감소.
무역	한국과의 자유무역 조약 체결.	자유 무역 지지.
의료 보험	의료 보험을 98%의 국민에게 제공하는 법 서명.	오바마 의료 보험 법 폐지.
교육	10개 주에 No Child Left Behind Program 면제 허가. 교사 평가에 따른 차등 임금 지급. Charter school 찬성.	연방 정부의 근본 교육 정책의 변화에 반대. No Child Left Behind Program 찬성. Charter school 찬성.
유산	지지.	전에는 지지했으나 현재는 반대.
총기	개인의 총기 소지 권리를 지지하나 경우에 따라 제한함.	총기 소지 권리 지지.
사형	최대한 절제하되 극악한 범인에 한해 찬성.	찬성.
동성애 권리	동성애자 권리를 옹호해 왔으며, 동거자의 권리를 보장하되 결혼은 반대.	동성애자의 동거 및 결혼을 반대.
사회 보장	개인 계좌 설치에 반대. 사회보장세금 최대액수 (Cap) 인상 찬성.	은퇴 연형을 점차 1,2년 연장. 혜택금의 인상 제한. 사회보장세금 최대액수 (Cap) 인상 반대.
이민	불법 이민자 사면 찬성. 시민권자의 불법 이민 배우자 및 자식의 영주권 신청. 절차 간소화 추진. (미국 내에서 신청 가능) 이민 정책은 연방 정부 소관. (일부 주 정부 안에 반대)	합법 이민자 수 증가 찬성. 불법 이민자에 대한 사면 반대. 불법 이민자 추방 찬성.
환경	탄소 방출 양한도 거래. (Cap & Trade) 찬성. 자동차 연료 효율 기준을 2025년까지 54.5 mpg로 인상.	탄소 방출 양한도 거래 반대. 자동차 연료 효율 기준 인상 반대.
북한	북한의 남한에 대한 적대적 행위 강력히 반대. 핵무기 개발을 반대하며 우방과의 협력 하에 해결을 희망.	협상 대상으로 북한을 불신. 확고하고 포괄적인 해결책을 희망.
아프가니스탄	2008년 선거 공약대로 아프가니스탄에 군대를 증가시켰으나 소기했던 성과를 내지 못했음. 지난 연말부터 아프가니스탄 주둔군을 줄이기 시작해 2014년말까지 미군의 전투 임무를 종료하되 아프가니스탄 군의 훈련은 계속할 것임.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주둔 문제는 군대의 최고 지휘자들의 의견에 따라야 하며,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대부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 4. 선거 분석

금년 유권자에게는 경제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데, 이 외에 의료보험, 빈부 격차,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민법, 사회 문제 (낙태, 피임, 종교)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국의 정치 성향이 민주당, 공화당으로 확실히 양분된 상황에서 대통령 후보의 개인적 매력은 당락을 결정하는 데 물론 중요하다.

##### 4.1 경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대부분 경제가 제일 중요한 쟁점이 되는데, 특히 현직 대통령의 재임 선거에서는 거의 결정적인 사항이다. 2008년 선거에서는 경제위기가 부시 전 대통령과 다른 당의 후보였던 오바마의 당선에 크게 도움이 되었지만, 대통령이 된 후보는 경기가 빨리 좋아지지 않아 오바마의 지지율이 많이 내려갔고 재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경기가 점차 좋아지고 있어 오바마의 재선에 희망을 주고 있다. 2009년 초에는 한 달에 70만명의 실업자가 늘어났고 실업률이 한때 10% 이상까지 올랐으나 금년 1월에는 28만명, 2월에도 22만7천명의 직장이 늘어났으며 실업률도 8.3%로 떨어졌다. 또한 한때 막대한 손해를 보며 부도 위기에 몰렸던 GM, Chrysler가 정부 주도 구조조정에 힘입어 회생해 GM은지난 해 70억의 이익을 내었고 Chrysler도 흑자를 내며 고용을 늘리고 있다. 오바마의 자동차 산업 구제 정책의 성공은 롬니의 반대와 대조되면서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인 미시간, 오하이오 주에서 오바마의 승리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 미국 경제가 취약한 상태이며 최근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유가와 불황 상태인 유럽 경기가 경제 회복에 방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오바마의 재선은 선거일까지 경기가 계속해서 좋아질 것인가에 많이 달려 있다.

##### 4.2 개인적 매력

유권자들은 자신이 좋아하고 같은 가치 기준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되기를 바란다. 대통령 후보자는 유권자들이 자신을 열성으로 지지하고 주변 사람들을 설득하여 투표장에 나와 투표하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점에서 롬니는 약점을 갖고 있다. 롬니의 막대한 재산과 많은 소득, 이에 비해 세금은 15%만 낸 점들은 많은 중산층 및 저소득층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 롬니는 또한 보수 공화당원들로부터 열성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보다 더 보수적 입장을 취함으로써 중도 유권자들로부터의 지지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에 비해 오바마는 빈부 격차가 늘어난 것을 비난하며 부자의 세금을 올린다는 정책을 취함으로써 중도층 유권자의 지지를 늘리려고 하고 있다. 한때 내려갔던 흑인과 진보성 유권자의 지지가 경제가 좋아짐에 따라 올라가고 있는 점도 오바마에 유리한 점이다.

##### 4.3 예비 선거

이번 공화당 예비 선거는 상대방 후보에 대한 치열한 비난이 유난히 심했다. 선두 주자인 롬니가 보수 공화당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보수당원들은 여러 번 롬니의 대타를 찾아 지지하려고 노력하였다. 이 과정에서 롬니는 새로운 선두 주자를 많은 비난 광고를 통해 제압해 왔는데 후보 경선이 전당 대회까지 계속될 경우 공화당원들의 단합에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롬니가 후보로 당선되면 보수 공화당원들도 오바마를 낙선시키는 것이 더 큰 목표이기 때문에 결국 롬니에 투표하리라는 전망도 있다.

##### 4.4 의료 보험

오바마는 2010년 공화당의 일사불란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료보험법을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후 이 법안에 포함된 강제 보험 가입안이 위헌이라는 소송이 많이 제기되었으며 몇 연방 고등법원에서는 상반된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법원은 이 안건을 심의하기로 하였는데 빠르면 올 여름에 판결이 나올 수 있다. 만일 위헌이라고 판결이 나올 경우 오바마에 불리할 것이며, 반대로 합헌이라고 판결이 나오면 오바마의 재선이 도움이 될 것이다.

##### 4.5 아프가니스탄 전쟁

오바마는 2008년 선거 공약대로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확대시켜 안정시키려고 노력하였다. 아프가니스탄에 병력을 2009년 2만명, 2010년에는 3만명을 증가시켜 전황을 유리하게 전환시키고 아프가니스탄 군대를 훈련시켜 치안을 담당하게 하고, 2011년부터 병력을 점차 줄여 2014년 말까지 전투병을 모두 철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파키스탄이 탈리반과 미국에 대해 이중 플레이를 함으로써 계속 힘들었던 파키스탄과의 관계가 작년 미군 특전사 병력을 파키스탄 내에 보내 빈라덴을 사살한 후 급격히 악화되었다. 또한 2012년 초 미군의 실수로 이슬람의 성전인 코란을 소각한 것이 문제가 되어 아프가니스탄 내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여러 명의 미군이 사살된 이후 미군 조기 철수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오바마의 아프가니스탄 정책 실패가 선거의 쟁점이 되리라 본다.

#### 4.6 이란 핵무기 개발

이란은 서방 국가들의 강력한 반대를 무시하고 핵개발을 평화적 목적이라며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핵무기 개발이 멀지 않았다는 전망이다. 이에 미국은 경제 제재를 강화하고 이란의 태도 변화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에게 더 기다리라고 설득하고 있으나 이스라엘은 국가 존폐에 관한 문제이므로 단독으로 폭격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만일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할 경우 미국은 이에 같이 말려들 가능성이 높으며 사태가 악화될 때는 유가가 급격히 상승할 수 있다. 위기 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올라갈 수 있으나 유가 상승으로 인하여 경제가 위축될 경우 오바마에 불리하다.

#### 4.7 이민 정책

불법 이민자의 사면을 오바마는 찬성하는 반면 롬니는 반대한다. 이는 각각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책과 같다. 따라서 히스패닉 인구가 많은 남부 멕시코와 접경 주에서 공화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 4.8 사회적 쟁점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샌토럼이 낙태, 피임, 종교 등을 쟁점으로 부상시킴으로써 사회적 쟁점이 2012년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근 버지니아 주에서 낙태 전 초음파 검사를 의무화 하는 법이 통과되었고, 극보수 라디오 토크쇼 호스트인 러시 림바우(Rush Limbaugh)가 피임약 사용에 대해 상식에 어긋나는 발언을 함으로써 여성 단체에서 많은 항의를 하였고, 이어 공화당에 대한 여성 지지율이 줄어 들었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다.

#### 4.9 인구 구성

남부와 서부 산악지역 주들에서는 공화당에 대한 지지가 아직 압도적이다. 2010년에 행한 인구 조사 결과 남부에 있는 주들의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 주들의 선거인단 수가 6개 늘어났다. 반대로 민주당이 우세한 동북부의 선거인단의 수는 줄어들어 롬니에 유리하다.

### 5. 전망

2012년 선거는 오바마 대통령의 4년 업적에 대한 평가의 성격이 강하므로 선거일 당시 유권자들이 느끼는 경제 상황

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된다. 2차 대전 이후 대통령의 재선 선거에서 레건(Ronald Reagan)은 실업률이 7.2%에서 당선되었으나 그 보다 높았던 카터(Jimmy Carter)와 부시(George H.W. Bush)는 실패했다. 그러나 루스벨트(Franklin Roosevelt)는 대공황 중이었던 1936년 실업률이 16.6%이었던 당선되었다. 따라서 이번 불경기가 대공황 이후 최악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선거일까지 경제 회복이 계속될 경우 실업률이 8%보다 높아도 오바마가 재선될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 선거는 270명의 선거인단 확보 경쟁이고 주마다 승자가 선거인단을 독차지한다. 공화당 및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주의 선거인단 수는 민주당, 공화당 각각 약 200명 쯤 된다. 따라서 270명의 선거인단을 획득하지 위해서는 오하이오,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플로리다, 콜로라도, 아이오와, 뉴햄프셔 등 소위 swing state에서의 승리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이들 주에서 오바마의 지지율이 현재 대부분 50% 미만인 것은 오바마 재선에 적신호이다. 아직 공화당 후보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가상의 대결에서 오바마와 롬니는 이들 주에서 거의 비슷한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누가 당선될 것인지 아직 전망하기 어렵다. 따라서 선거 시점의 경제 상황, 후보 TV 토론 등이 당락을 결정하리라 본다.

### 6. 결론

미국의 선거 제도는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각 당의 후보를 뽑고 이어 대통령을 뽑는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예이다. 이 과정이 항상 복잡하고 오래 걸리며 돈이 많이 들어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선거 과정이 투명하고 부정이 없으며 패자는 승자에 깨끗이 승복한다. 이 과정을 4년마다 반복함으로써 새로운 시작을 하며 궤도 수정을 한다.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와 의무를 수행하여 대통령 선거에 빠짐 없이 참여해야 할 것이다.





# 유권자 등록 및 부재자 투표에 대하여 How to Apply for an Absentee Ballot

2012년 11월 6일 화요일에는 미국 대선이 치러진다.  
복잡한 미국대선 절차와 유권자 등록 및 부재자 투표요령을 좀 더 알기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시민협회 저널 편집부는 아래의 같이 정리해보았다.

편집자 주

## ●정리/ 장정우

다음은 매사추세츠 주정부 산하 선거본부(ELECTIONS DIVISION)가 공표한 내용입니다

### 유권자 등록 요령

자격: 미국 시민권자이면서 거주자  
만 18세 이상의 성인

#### 유권자 등록 요령:

- ▶우편으로... 해당양식을 웹-사이트로 다운받아 (혹은 전화로 거주 타운/시청에 요청하여) 작성한 후, 우편으로 보내면 보통 2-3주안에 확인증이 집으로 도달하게 됩니다.
- ▶직접 해당 등록처에서 등록 진술서 작성을 통하여 가능함
- ▶차량 등록청 (RMV)... 차량등록 갱신 때 등록의사를 밝히면 가능함
- ▶유권자등록은 한번만 하면, 매번 해당 해당투표소(PRECINT)에 방문하여 모든 선거에 투표할 수 있으며, 단 이사 갈 경우, 이사 간 곳의 타운/시청에 유권자등록 변경을

하면 됩니다.

▶유권자등록은 타운모임은 10일전, 그리고 모든 정당 예비선거(프라이머리) 및 주요 선거의 경우에는 20일전에 등록하여야 투표할 수 있습니다.

#### 유권자 입증 서류:

입증서류는 주로 운전면허증 혹은 기타 공공 신분증 혹은 공공요금 납부서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단 입증서류에는 정확한 이름과 주소가 기입된 것이어야 합니다.

편집자 주: 이러한 규정을 보면, 미국시민을 입증하는 시민권, 미국 출생증명 혹은 미국여권을 제시하지 않고도, 유권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시민권자가 유권자등록을 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주지하여야 합니다.

### 부재자 투표 요령

투표용지를 받고 기표하여 우송한다.

서면통보서에 이름, 거주지, 정확한 투표지(WARD 와

PRECINT), 투표용지를 받을곳, (예비선거의 경우는) 소속 정당이름과 본인의 서명을 해서 본인의 원래거주지 타운/시청에 보내면 됩니다.

혹은, 부재자 투표 양식을 웹-사이트에서 다운받거나 직접 타운/시청에 방문하여 부재자양식에 기입과 서명을 하여 투표용지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가족이 본인을 대신해서도 투표용지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물론, 투표용지를 받을 가족이 기본적으로 한번은 유권자 등록을 해야만 합니다.

병원에 혹은 타주, 타국에 있을 유권자 또한 가족을 통해 투표용지를 받아, 부재자 본인의 서명을 하면 선거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부재자투표는 증인 혹은 공증인 앞에서 서명하는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 How to Register to Vote

### Who may register?

Only a person who is: a US citizen, and a resident of Massachusetts, and 18 years old on or before election day

### How can I register to vote?

**By Mail:** Mail-in registration forms are widely available. To obtain a mail-in registration form please <http://www.sec.state.ma.us/ele/elestu/stuidx.htm>, or call 617-727-2828 or 1-800-462-VOTE and a form will be sent to you or you can download a National Voter Registration form. Mail the completed form to your local city or town hall. You should receive a confirmation notice in 2 to 3 weeks. If you do not, please contact your local election office to verify your voting status.

**In Person:** Go to any registration location and complete an affidavit of registration, which must be answered truthfully under the penalty of perjury. The questions on the affidavit will include your name, residence and date of birth.

**At the Registry of Motor Vehicles:** Keep your motor voter receipt until you receive confirmation from your local election official. If you do not receive any confirmation, please contact your local election office to verify your voting status.

### When and where may I register?

There is no waiting period to be eligible to register to vote. If you move, you may register to vote as soon as you move into your new home.

### You may register to vote:

- ▶ in person or by mail, by completing a mail-in registration form and delivering it to your city or town election office, or
- ▶ at any local election office in any city or town in the state and at any registration event you encounter anywhere in Massachusetts, or
- ▶ when applying for or renewing your driver's license at the Registry of Motor Vehicles or when applying for service at a designated voter registration agency.

Registration forms are also available at all colleges, universities, high schools and vocational schools.

### What must I do if I've changed my address since I registered?

If you have moved within the same city or town, notify your local election office of your new address in writing. If you have moved to a new city or town, you must register again.

### Are there deadlines for registration?

Yes. In order to vote you must be registered:

20 days before all primaries and elections, and/or



10 days before a special town meeting.

### Do I need to attach identification to my voter registration form?

Yes, if you are registering to vote for the first time in Massachusetts. Because of a new federal law, the Help America Vote Act of 2002 passed by Congress, if you registered to vote by mail on or after January 1, 2003, you will be required to show identification when you vote for the first time in a federal election since registering by mail in 2003, or you can send in a copy of your identification with your voter registration form. Acceptable identification must include your name and the address at which you are registered to vote, for example: a current and valid driver's license, photo identification, current utility bill, bank statement, paycheck, government check, or other government document showing your name and address. If you send in a copy of your identification with your mail-in voter registration form, it may not be returned to you. If you do not provide such identification, the Help America Vote Act of 2002 requires that you may only cast a provisional ballot which will be counted later, but only after your eligibility to vote has been determined.

### What should I do if I registered to vote and I have not heard from my local election official?

If you have NOT received confirmation of your voter status from your city or town election official within 2 or 3 weeks from the date you registered please contact your local election office to verify your voting status.

## How to Apply for an Absentee Ballot

### I can't get to the polls on election day. Can I vote?

Yes. You may vote by absentee ballot if you:  
will be absent from your city or town on election day, and/or  
have a physical disability that prevents your voting at the polling place, and/or  
cannot vote at the polls due to religious beliefs.

### How can I apply for an absentee ballot?

Apply in writing to your city or town clerk or election commission and include your:

- name,
- address as registered,
- ward and precinct (if you know them), address where you wish the absentee ballot sent,
- in a primary, the party ballot you want, and
- your signature.

There is an application form available at your local election office or by downloading one of the applications below. You may also make application by letter or note. Whichever method you choose, the application must be made in writing and signed.

### Absentee Ballot Applications...

If you do not have a pdf reader, please download and install Acrobat Reader in order to view and print the following applications.

Absentee Ballot Application (PDF, 120k)

Peticion de Voto en Ausencia (PDF, 452k)

Note: A family member of a person qualified to vote by absentee ballot may apply in the same manner for you. Download and use the application below.

Absentee Ballot Application by a Family Member (PDF, 100k)

Peticion de Voto en Ausencia para un Familiar (PDF, 444k)

### Can anyone else apply for an absentee ballot for me?

Yes. A family member may apply for you.

### When should I submit my application for an absentee ballot?

If you wish to vote by absentee ballot for more than one election in a year you may make one application and request that ballots for all elections during that calendar year be sent to you.

If you vote by mail, make certain the application

arrives at your local election office early. Remember, the ballot will be mailed to you. You may mail or hand-deliver it back to the election office but must arrive before the close of the polls on election day (8:00 p.m. for state elections).

If you cast your ballot at the clerk's office before election day, plan to visit the office two or three weeks before the election. You can make your application and cast your vote in one visit.

Call the clerk's office to make certain that the absentee ballots are available. Absentee ballots should be available three weeks before an election.

#### How do I vote by absentee ballot?

You may vote at the clerk's office or request that the ballot be mailed to you. The deadline for applying for an absentee ballot is noon of the day before the election.

#### Can a family member apply for my absentee ballot?

Yes.

#### Must I be a registered voter in order to vote by absentee ballot?

Yes, unless you are a "specially qualified voter". A specially qualified voter is a person:

who is otherwise eligible to register as a voter and whose present domicile is outside the United States and whose last domicile in the United States was Massachusetts or whose present domicile is Massachusetts and who is: (a) absent from the city or town or residence and in the active service of the armed forces or in the merchant marine of the United States or a spouse or dependent of such person; (b) absent from the commonwealth; or (c) confined in a correctional facility or a jail, **except if by reason of felony conviction.**

#### Must my ballot be witnessed?

No.

#### What if I'm not able to mark my absentee ballot?

You may ask any person to help you. The helper must print his or her name and your name on the brown envelope, write the reason you needed help and then sign his or her name as the assisting person.

#### Are polling places accessible to elderly and disabled voters?

Yes, Federal law required polling places be accessible by 1986.

#### I'm permanently disabled. May I vote at home?

Yes. You must apply to your local election office to do so. File a letter from your doctor with the town or city clerk or election commission. The doctor must state that you are permanently unable to cast your ballot at the polling place due to a physical disability.

The local election official will automatically mail you an application for an absentee ballot for all elections in a calendar year. You must sign the application and send it back to your local election official.

Call your local election official for information about how to register to vote at home or to request that a mail-in registration form be sent to you.

#### My parent is in a nursing home. Is she/he able to vote by absentee ballot?

Yes, as long as that individual is not under a court ordered guardianship which specifically prohibits voting. Any patient in a nursing home must be a registered voter in order to vote by absentee ballot and must fill out an absentee ballot application.

If the clerk designates a health care facility in writing 28 days before the election, the ballot must be hand-delivered to such facility by a Registrar. If the patient states that he/she has entered a hospital after noon of the fifth day before the election, the ballot may be hand-delivered to the voter; otherwise, the ballot should be mailed to the voter at the facility.

Consult the administration of the nursing home for further instructions.





감사의 글



## 미국 시민권을 받고나서...

지난 7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 렉싱턴 성요한 교회에서, 미국 시민권 취득 무료 워크 샵이 개최 되었다. 뉴잉글랜드 한인 미국 시민 협회에서 회장님을 비롯하여 김성군 변호사님 그리고 임원들이 시민권 신청의 모든 과정을 무료로 도와주었다. 또한 도우미들이 영어에 서투른 한인들의 신청 서류를 일일이 작성해 주었고, 이미 작성 해온 신청서도 김성군 변호사님께서 한장 한장 꼼꼼히 확인해 주셨다. 그리고 이민국에 보낼 봉투까지 작성해 오셔서 완벽하게 제출할 수 있었다. 또한 시민권 신청인이 알아야 할 사항과 시민권 시험 문제 100문항을 한국어로 번역해 주셔서 이해하기에 아주 쉬웠다. 나는 열심히 공부하여 인터뷰에 당당히 합격하였다. 그러므로 2011년도 12월 8일은 나에게 아주 특별한 날이었다. 보스턴의 역사적인 Faneuil Hall에서 오후 12시에 미국 시민 선서식이 거행 되었다. 겨울의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는 400여명 이방인들의 열기는 대단하였다. 나는 미국 시민권을 받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여러 가지 교차되는 마음으로 마음이 뭉클하였다. 이제 미국 헌법과 법률을 옹호하고 준수해야 함은 물론이며, 앞으로 다가오는 선거에도 참여하고 한국인으로서 뚜렷한 미국 시민이 되어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하였다. 앞으로 한국 미국 시민 협회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우선 미국에 사는 한국인들이 단합이 되어 강하게 한국인의 힘을 키울 수 있는 단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자라나는 우수한 학생들을 미국 사회 즉 정치, 학교, 연구기관 등등 모든 분야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도울 수 있는 발판의 원동력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동안 저희를 위해 동분서주 열심히 뛰신 뉴 잉글랜드 한인 미국 시민 협회와 이경해 회장님에게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미국 시민권을 받은 한 사람으로써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희 드림

### 김영희 수필가는

이화여자 대학교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1996년 12월 도미하였습니다.  
2011년 11월 예순의 나이에  
『현대 수필』잡지에  
“겨울 나무”로 등단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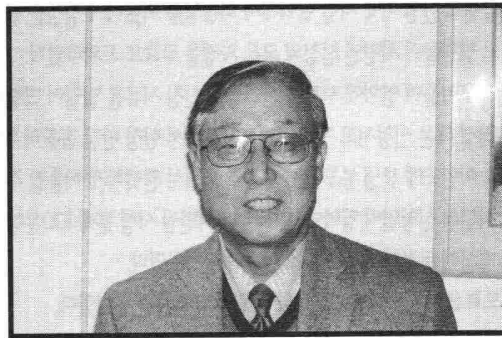
# “뉴 잉글랜드 한인 미국 시민협회” 20年史

본문은 김문소 전이사장님께서 2009년 10월 24일, 제19차 총회에서 “시민협회의 창립 취지와 역사”라는 제어로 강연하신 것입니다.

편집자 주

글/ 김문소 감사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은 지난 20년 뉴잉글랜드 한인 미국시민협회와 함께 걸어 온 산 증인중 한사람으로 단편적이거나 제가 정리해 본 요약말씀드리고, 혹 이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 시민협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다시 재정립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여겼습니다.



명이 참석하신가운데 역사적인 창립총회를 가지고, 본회의 명칭을 “뉴잉글랜드 한인 미국시민협회” 영어로는 “Korean 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으로 정하였습니다.

뉴잉글랜드 한인 미국시민협회의 목적은 다음의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민협회는 LA 폭동이 있었던 1992년 4월 29일 이전에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었던 단체입니다.

1989년 12월 한인회 송년파티 때 김영집, 김은한, 김삼용, 이문봉, 김문소 등이 시민협회를 조직하기로 합의하여, 이듬해 1990년 4월 22일 김영하 당시 한인회 이사장님께서 가진 한인회 이사회에서 시민협회를 한인회 산하기관으로 하되, 한인회는 문화와 친목행사를, 시민협회는 정치에 관한 일을 맡도록 합의했습니다.

이후 김은한 회장님께서 가진 몇 차례 준비모임에서 보스톤 지역의 한인들을 가능한 모두 포괄하기 위해 사찰, 천주교, 개신교에서 한 두 명의 이사를 천거하여 시민협회의 이사회를 구성할 것과 창립총회 장소, 강사선정, 신문광고, 연락 등을 분담토록 하여, 드디어 1990년 8월 18일 성요한 교회에서 150여

1. 미국 정치에 적극 참여.
2. 한인의 법적 지위 향상과 권익 신장.
3. 한인의 정치, 경제, 사회적 여건 확대.
4. 한민족의 전통을 유지 및 보존하여 미국 사회에 기여.
5. 한 미 우호관계 증진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위한 사업으로

1. 선거권, 피선거권 행사.
2. 한민족의 입장을 지지하는 정치인 지원.
3. 한민족의 권익에 관련된 법률을 위한 합법적 로비활동.
4. 한민족의 청소년과 노인복지사업.
5. 2세들의 정치활동 지원 등이 있습니다.

지난 20년간의 주요 사업 다섯 가지를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보았습니다.

## 출판사업

### 1) 시민협회지 발간

매년 발간되어온 본 협회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본 협회지에는 주지사, 연방상원 및 하원의원, 보스턴 총영사 등의 축하, 여러 분야의 기고문들, 매년의 사업 및 결산보고, 협회 임원, 이사 명단 및 주소록과 광고 등을 실리고 있습니다.

1991년(창간호) 500부, 1992년(2호) 700부, 1993년(3호) 1000부, 1994년(4호)과 1995년(5호) 2800부, 1996년(6호)부터 2009년(18호)까지 매년 3000부씩 발간하여 왔습니다.

### 2) 시민권 취득 종합 안내서

1997년 3월 29일 1000부 발간(초판)한 시민권 취득 종합안내서는 발행인 김양길, 편집인 김문소, 편집위원장 김명기, 편집위원 최홍균, 김성군 등이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최홍균 부회장의 시민권 취득 안내를 비롯하여, Form N-400 시민권 신청서, 실제 필기시험 문제 및 답안지 견본, 영어 필기시험, 한국어 필기시험, 면접(인터뷰) 구두시험, 뉴잉글랜드 한인 미국 시민협회 가입원서 등으로 엮어진 50면의 안내서는 많은 분들과 단체, 사찰 및 교회의 성원과 도움을 받아 출간하였고, 시민권 취득 준비를 하는 분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 3) 미국 법과 생활 및 민권 안내서

1999년 8월 30일 3,000부 발간한 이 책은 미국에서 살고 있는 한인 미국시민, 한국인 이민자 및 유학생을 위한 안내서로서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발간한 “재미 동포용 법과 생활” 과 University of Massachusetts 의 Institute for Asian American Studies 에서 발간한 “아시아계 미국인을 위한 민권 안내서 (The Asian American Civil Rights Resource Guide)” 를 번역하여 함께 합본(58면)으로 출간된 것이며, 이 책의 출판은 AAUD ( Asian

American Unity Dinner, Inc.) 의 Grant 로 되었습니다. 발행인 최홍균, 편집인 이의인, 감수 김성군 변호사(민권안내 부분) 등이 수고하였습니다.

### 4) Newsletter 발간

김양길 회장과 김명기 사무총장의 노력으로 매년 발간되는 협회지를 보충하기 위해 1998년에 4회 (4월, 7월, 8월, 10월) 1999년에 1회 (5월) 4,000부씩 발간 배포했습니다.

### 5) 선거 자료집 『투표 2000』 발행

김성군 회장과 이의인 편집위원장의 수고로 NAKASEC 의 선거자료 등을 총 집결한 선거안내 자료인 『투표 2000』 를 1000부 발간하여 배부하였습니다.

## 정치인 지원 모금 행사

1) 1993년에 김창준 남가주 연방하원의원 재선을 위해 남궁연 준비위원장의 노고로 14,000불을 모금 지원하였습니다.

2) 1994년에 William Weld (Massachusetts 주지사 공화당후보)를 위해 김은한 회장님께서 \$11000을 모금 지원하여 준비, 주지사로 당선 후에는 1) 한인 세탁인들의 행정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Korean Instructor 2명을 주정부에서 임명해 줄 것, 2) 주정부 고위직에 한국인을 임명해 줄 것. (이렇게 하여 Dr. Howard Koh, Commissioner of Department of Public Health, The Commonwealth o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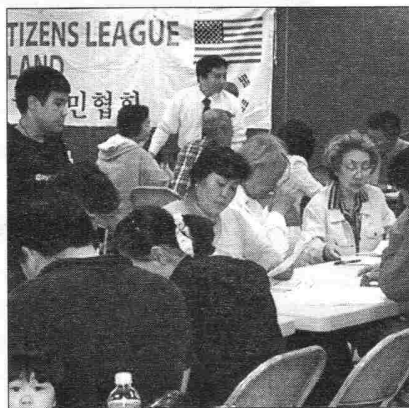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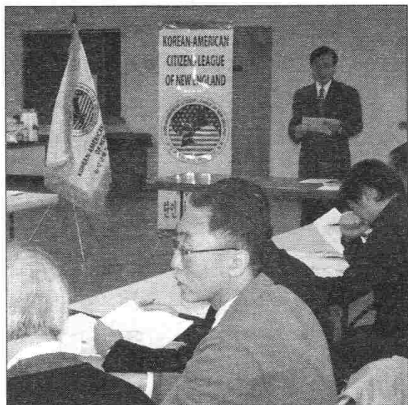
Massachusetts 됴) 3) 공공기관에 한국어 통역사 고용할 것 등을 약속 이행한 바 있습니다.

3) 1996년에 Paul H. Shin (신효범) Washington 주 상원의원이 그 곳 부주지사 후보출마를 위해 시민협회 주관으로 3,600불을 모금 지원하였습니다.









4) 1998년에 Scott Harshbarger (Massachusetts 주지사 민주당 후보)를 위해 Lexington Elks에서 14,000불을 모금 지원하였습니다.

5) 2004년 12월 4일에는 Sam Yoon 의 Boston 시의원(광역) 후보를 위해 김문소 전이사장대에서 13,600불을 모금 전달하여 시의원이 되었습니다.

6) 2007년 9월 23일에는 Sam Yoon, Boston City Councillor 의 재선을 위해 김양길 이사장대에서 8,000불을 모금 지원하였습니다.

7) 2009년에는 Sam Yoon의 Boston Mayor 후보 지원을 위해 이경해 회장의 수고로 10,000불을 모금 지원해 주었습니다.

기타 시의원, 주 상원, 하원의원, 연방 상원, 하원의원, 대통령후보 등등 여러 정치인들의 모금 파티 때 마다 시민협회 이사들과 수많은 한인들이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참여 지원 해 온 바 있습니다.

### 시민권 취득 워크샵

1995년 경부터 불기 시작한 미국 내 보수화 경향에 따라 월페어 개정과 반이민법 때문에 많은 한인 특히 한국노인들의 시민권 취득이 시급하게 대두 되었습니다. (예로 91세인 저의 어머님도 LA에서 이때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이를 해결코자 김양길 회장의 강력한 추진으로 New York YMCA 민홍식 총무의 소개로 Marich Associates 가 대행하는 시민권 시험 program에 우리도 참여하여 영어와 한국어로 시민권 시험을 처음 실시한 바 105명 신청자중 82명이 합격하는 결과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어 Marich 의 대행시험 대신 시민협회 독자적인 시민적 취득 워크 샵을 매년 2회씩 실시하여 지난 10여 년간 수백명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무료로 봉사해 오고 있습니다. 이 워크 샵을 위해 김성균 변호사, 한석훈 변호사 등과 김명기 사무총장을 비롯한 많은 우리 시민협회 이사들과 그 가족들의 수고가 컸습니다.

### 정치인턴 장학금 지원

“1세를 위한 사업이 시민권 취득이라면, 2세를 위한 사업은 정치인턴을 돕는 일이어야”라고 천명한 최홍균 회장이 1998년에 처음으로 정치인턴 장학금 지원사업을 시작한 이래 2009년 현재까지 42명의 정치 인턴들에게 총 50,000불 이상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정치 인턴은 여름방학중 6주간을 Edward Kennedy나 John Kerry 연방 상원의원이나, 연방 하원의원 office가 있는 Washington D.C.나 Boston에서 또는 주지사, 검찰총장, 주의원 사무실에, 근간에는 Sam Yoon Boston 시의원 office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맡아 도와주며 실무 경험과 인맥을 쌓은 좋은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이들의 보고서가 시민협회지에 지난 10년간 계속 실려 왔으며, 그들의 글을 읽어 볼 때마다 정치 인턴 장학금이 앞으로 미국뿐 아니라 세계를 움직일 인재로 기르는 일임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치 인턴 장학금 모금 만찬을 위해 계속 뒤에서 10여년간 수고하신 두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은 신상철 부회장이며 또 다른 한 분은 이경해 현 회장으로 특히 이경해 회장은 지난 12년간 부회장직을 묵묵히 협회를 위해 보이지 않게 수고를 많이 해 왔습니다.

### 라기관과의 연례활동

#### 1) Asian American Unity Dinner(AAUD)

매년 5월 첫 토요일에 Asian American 100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Asian의 단합을 과시하는 저녁 모임으로 Boston시장, 주지사, 주지사 후보들이 꼭 참석하여 우리들과 교제를 가졌습니다. 이 모임의 Co-Chair로 최홍균 회장이 수고한 바 있으며, AAUD에서도 우리 시민협회의 활동을 인정하여 AAUD 지역 사회 봉사 개인상을 저희 시민협회에서 여러 명이 수상한 바 있습니다.

1996년에는 김기자 이사께서 1998년에는 필자인 김문소 전 이사장이 2000년에는 김양길 전 회장이 수상하였으며 또 예전에 말씀 드린 “ 미국 법과 생활 및 민권 안내서 “의 출판 비용 10,000불을 Grant로 AAUD에서 받기도 했습니다.

#### 2)Asian American Commission(AAC)



AAC는 Massachussets주 Governor 직속 기관으로 최홍균 전 회장과 김기자 이사가 봉사 한바 있습니다.

\*AAC에 이경해 회장도 2012년부터 봉사하고 있습니다.

### 3) 전국 한미 지도자 대회

1996년에 김영집 회장이 참석한 이래 김양길 회장, 김성군 회장, 김영기 사무총장, 함성기 이사 등이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2000년대 김성군 회장은 많은 타 기관의 공조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 4) 대한민국 대통령 표창 수상

그간의 시민협회 활동, 시민권 취득 워크샵, 정치 인턴 장학금 지급, 특히 김창준 남가주 연방 하 의원과 신호범 워싱턴 주 상원 의원, Sam Yoon 보스톤 시의원등 한인 정치인들을 위한 모금, 지원 등이 대한 민국 정부에도 인정되어 2005년에 김문소 전 이사장께서, 2007년에 김성군 회장이 대한민국 대통령 표창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상의 일들을 수행하기 위해 여러 이사 임원들의 노고가 컸음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리며, 특히 여러 분야의 책임자들이 20여년을 마다 아니하고 계속 시민협회의 앞날을 위해 계속 봉사해 오신 것에 참으로 큰 감사를 드립니다.

## 끝으로 그간의 자료를 분류해 보겠습니다.

### 1. 역대회장

- 초 대 김영집 (1990-19992) 3년
- 2 대 김은한 (19993-1995) 2년
- 3 대 김양길 (1996-19997) 2년
- 4 대 최홍균 (1998-1999) 2년
- 5 대 김성군 (2000-2008) 9년
- 6 대 이경해 (2009-현재)

### 2. 역대 이사장

- 초 대 김문소 (1990-1997) 7년
- 2 대 이문열 (1998)
- 3 대 박대위 (1999)
- 4 대 김양길/김문소 공동 (2000)
- 5 대 송기백 (2001-2004)  
공석 (2005-2007)
- 6 대 김양길 (2007-2009)
- 7 대 김성군 (2010- 현재 까지)

### 3. 시민협회 편집 책임

- 김명기 편집 위원장 (1991-1998) 8년
- 이의인 편집 위원장 (1999-2005) 7년

이기영 편집장 (2006- 현재까지)

### 4. 시민 협회지에 협회활동 보고서

- 김문소 이사장 (1991-1994)
- 최홍균 총무 (1995-1996)
- 김명기 사무총장 (1997-2009)
- 박재범 사무총장 (2010부터)

### 5. 비 영리 단체 등록

1995년에 당시 최홍균 총무와 이현주 재무 이사 및 김성군 변호사에 의해 우리 시민협회가 비 영리 단체로 등록 되었습니다. 이렇게 20년을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 이제 앞으로 시민협회의 Vision을 밝혀 보고 싶습니다.

“일기당천”이라는 옛 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들의 자랑스러운 1.5세, 2세대들, 특히 지난 12년간 정치 인턴을 마친 수백명의 정치인턴 학생들이 사회 여러 분야에서 백배, 천배, 만배의 파장으로 일으킬 Korean American Leader 들임을 저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한 단체가 생겨서 10년이 지나야 그 단체의 성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민협회는 20년이 되었습니다. 뿌리가 이미 깊이 내려졌으며, 이제부터는 열매를 맺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또 20년이란 말은 Generation이 한 차례 바뀌었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시민협회도 1.5세, 2세가 주역이 되어 즉 회장, 이사장, 이사들이 되어 시민협회를 이끌어나가고, 1세대들은 뒤에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지원자들로서의 “역할 분담”을 할 때가 아닌가 봅니다.

시민협회는 정말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정치인으로 정치를 할 인재들의 “모임의 장”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야 이들이 꽃을 피고 열매를 맺어가 한 민족 뿐 만 아니라 Asian-Pacific 모든 이민자들과의 결속을 통해 이민자의 나라, 미국이 더욱 풍요롭고,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는 “홍사단”과 같은 “한 민족의 지도자 양성소”가 되기를 원하며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김문소** 감사는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을 졸업하고 ROTC 3기로 제대 후 서울대 학교 보건대학원에서 보건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1976년부터 현재까지 Tewksbury Animal Hospital의 원장입니다. 뉴잉글랜드 한인 미국 시민협회의 초대이사장(1990-1997), 뉴잉글랜드 한인회 초대회장(1978), 뉴잉글랜드 한인회 이사장(1983 & 1985), 재미한인수의사회 회장(1995), Tewksbury Lions Club 회장(2001), Tewksbury State Hospital 이사(2002부터) 및 1981 부터는 보스톤 한인교회 장로의 직분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는 대한민국 대통령 표창장을 수상 받은 바 있습니다.

Kyunghae Kay Lee

1971-1974: B.A. Sociology from Chained University, Honolulu, 1976: MA. Sociology from Boston College, 1980: M.S. Rehabilitation Counseling from Boston University. Commissioner on Asian American Commission, A Board member at NE Korean School, Lee Associates (Real Estate Brokerage) principal with husband.

# 매사추세츠 아시안 아메리칸 위원회

## Massachusetts Asian American Commission

● AAC 위원 / 이 경 해

그녀는 MASS주 패트릭 주지사 그리고 국무장관 윌리엄 프랜시스 갤반의 추천으로 제가 ASIAN AMERICAN COMMISSION (아시안 아메리칸 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었고, 주-감사관이신 수잔 범프 사무실에서 지난 1월 선서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초대 위원으로서 지난 5년 동안 한인, 아시안 사회를 위해서 오랫동안 봉사해 주신 김기자 위원님의 후임이며, 유일한 한인 위원으로 선출되는 영예가 있었습니다.

사실 매사추세츠 아시안 아메리칸 위원회는 1992년 아시안 아메리칸에 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주지사에게 자문을 하도록 그 당시 주지사였던 웰드에 의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초창기부터 한인 위원들의 참여가 활발했고 최승훈씨, 김기자씨 그리고 시민협회 회장 최홍균 박사님을 부회장 직책을 맡으셨고 1996년 김기자 위원께서 "지역 사회 봉사자"를 수상하였으며 시민협회의 "시민권 취득 종합 안내서" 발간 프로젝트가 2,000달러의 그랜트(보조금)을 수여 받은바있



I Was appointed by the Secretary of Commonwealth, William Francis Galvin and had a swearing-in ceremony at the Auditor's Office, Suzanne Bump this past January. I am the only Korean commissioner after Ms. Kija Kim's done a remarkable job, representing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in MA for many years.

Originally, the MA Asian American Commission was established by Governor William F. Weld in 1992 to advise the Governor on Asian American affairs. Korean American commissioners have played an instrumental part in all AAC's activities throughout the years. Since the inception, Ms. Kija Kim and Mr. Seung Choi have helped develop AAC's agenda from economic development issues to civil right advocacy to political participation. Dr. Hong Choi was

습니다. 또한, 1998년에는 아시안 커뮤니티가 수여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개인 지역 사회 봉사상" 수상자로 김문소 시민협회 전이사장께서 상패를 수여 받은바 있습니다.

현재의 AAC 조직은 2006년 현주지사인 드발 패트릭 산하에 설립되었습니다. 주지사께서는 소수 민족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미국사회의 아시아 민족, 또 그들의 우수한 교육과 과학, 경제 문화가 MASS주에 공헌하는 것을 인정하여



설립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아시안 민족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는 방법으로 이 AAC가 "교두보 역할"을 담당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현재의 위원들은 18명으로 구성되었고, 중국(대다수), 캄보디아, 월남, 인도, 한국 커뮤니티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AAC는 매달 두 번째 화요일에 정기 회의를 가지고 있으며, 지역사회 단체나 개인들도 이 회의에 참석하여 발표하거나 제안함으로써 AAC 위원회에 그들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also appointed as a commissioner, then, elected as Vice President and Dr. Moon So Kim was received the "Outstanding Achievement Award" in 1998, which was the highest recognition by AAUD.

This commission was formed in 2006 under Governor Deval Patrick in recognition of the General Court's findings that Asian Americans constitute the fastest growing minority population in both the Commonwealth and the United States, that they represent a diverse population within the Commonwealth, that many members of the Asian American community have overcome great hardship and made outstanding contributions to the educational, economic, technological, and cultural well being of the Commonwealth, but still face many challenges in their efforts full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integration within the Commonwealth.

Created by legislation in 2006, the Asian American Commission is a permanent body dedicated to political advocacy on behalf of Asian Americans throughout Massachusetts. Those instrumental in its creation include former State Treasurer Timothy Cahill (D-Quincy) State Senator Michael Morrissey (D ? Quincy), Senator Richard Moore (D - Uxbridge) and Representative Bruce Ayers (D ? Quincy), Representative Kay Khan (D ? Newton).

The Massachusetts Asian American Commission (AAC) is a Massachusetts Commission established under section 68 of chapter 3 of the Massachusetts General Laws, which went into effect on October 29, 2006. The Commission's goal is to recognize and highlight the vital contributions of Asian Americans to the social,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life of the Commonwealth; To identify and address the needs and challenges facing the residents of Asian ancestry; And to promote the well-being of this dynamic and diverse community and thereby, advance the interests of all persons who call Massachusetts home.

This year, the commission is comprised of 18 business and civic leaders from a wide range of Asian American Communities, from Chinese (majority), Cambodian, Indian, Korean to Vietnamese. The AAC meets monthly on the second Tuesday of each month. Community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are invited to attend to these meetings to make presentations,



## 2012년 계획하는 행사를 다음과 같습니다

### 1. RESOURCE FAIR

퀸시 고등학교에서 이미 거행되어 6000 명이 넘는 아시아인들이 참석하였고, 퀸시 시장과 국회의원들을 비롯하여 많은 정치인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이 행사가 가지는 의미는 "The Numbers are the Power" 특히 올 11월 주요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 2. UNITY DINNER

5월 16일에 예정되어 있으며, 보스턴 대학 최고의 영예의 수상은 하바드 경영대학원 학장이신 Nitin Nohria 입니다. 시민협회는 계속해서 이 행사에 참여하였고 지속적으로 후원을 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많은 한인께서 적극적으로 참석, 후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3. 차세대 지도자 심포지엄

2012년 9월에 예정되었으며, 아시아인 아메리칸 대학생과 전문직의 젊은 층을 초대해서 왜 그들이 주정부 연방 정부에서

proposals and give their input to the Commission,

The AAC's major activities planned in 2012 are Resource Fair, Unity Dinner, Young Leader Symposium and Community Outreach Program,

### 1. RESOURCE FAIR

this was held in Quincy, the City of the most Asian populations in Massachusetts, on 2/12/12 and about 6,000 people attended. Many prominent politicians attended this event, including Quincy Mayor, Tackey Chan, Quincy's First Asian American State Representative, Congressman Stephen Lynch, even Democratic and Republican Senate candidates, Elizabeth Warren and Scott Brown. This has clearly demonstrated the fact that the numbers are the power.

### 2. UNITY DINNER

Our annual Unity Dinner celebrates the achievements of the Commission and the people of the Commonwealth. The Commonwealth does not financially support the Commission, so funding comes from many sponsors. This sponsorship will ensure that the Commission has the resources necessary to successfully carry out its mission.

Sixth Annual Unity Dinner will be held on Wednesday, May 16, 2012 at Boston University. KACL has been supporting this event every year and I encourage you to attend to celebrate the

일해야 하나, 현직 동양계 정치들을 초대해서 질의하고 응답하는 시간을 가지고 정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입법, 예산과정, 법안들이 제정되는 과정, 정치 입후보자에게 “어떻게 선거직에 들어가나” 등을 다루고 교육시키는 심포지움이 될 것입니다. 이곳 지역의 대학생들, 젊은 전문인들을 많이 초대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우리 “뉴잉글랜드 한인 미국 시민협회”이 표방하는 미션 성취에도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AAC단체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한인과 아시안 커뮤니티를 연결하고 미국 내 아시안들의 정치력을 응집하는데 힘쓸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인 차세대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시민협회와 AAC위원회가 서로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상부상조하면, 우리들의 관심사를 관철하고 더욱더 진작 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동참함으로써, 우리 한인사회가 아시안 미국인의 한 일원으로써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많은 후원과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Please visit AAC website at <http://www.aacommission.org> for further information.

achievements of the Commission and the people of the Commonwealth.

### 3. Young Leaders Symposium:

scheduled in September, 2012. The goal is to invite Asian American college students and young professional to the works of the state and federal government. It is a half-day symposium with speakers, discussions and workshops around topics such as running for office, how a bill becomes law, state budget, statistics of Asian Americans in politics, government careers, and more.

I found out similar problems with ACC and KACL- so many people don't know about the existence of AAC and the role and function of AAC. My hope is to be more visible to the main streams and even other Asian American Communities, including Korean Community. I also look at this appointment as a chance to promote KACL's missions and like to encourage members of the Korean Community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AAC activities. By working together, we can have more influence to protect and advance our interests.

시민협회의 제2호 회지 발간을 축하합니다.

# 뉴햄프셔 한인회

The Korean-American Society of New Hampshire

535 Peverly Road Portsmouth, NH 03801

603-767-13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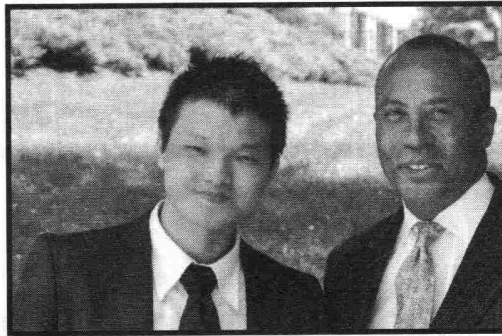
회장, 이사 및 임원 일동

# “Understanding Real Politics”

by Sungtae Park

A common assumption about American politics or politics in any democratic country is that it merely involves proper elections, lively debates, voting, and executive action. That is what I learned in my middle school social studies class. Sure, there may be frictions here and there but overall it is an ideal, proper, and flowing process: It is not. In addition to the proper procedure, many other factors, easily spotted or well hidden, are in play. Whether it is internal party struggle, lobbying by different special interests groups, personal connections, personal interests, or election prospects, one thing is for sure: Democratic politics is just not what it appears to be.

I have always known that politics is a convoluted process. I have also known that a political process sometimes involves things that might run contrary to what moral idealists envision proper democracy to be. Every system has its flaws? including advanced democracy, such as the one in the United States. Yet, it is the best system humanity has invented so far. I am not an idealist of any sort or a liberal myself. I consider myself to be a realist, who strives to understand the two sides of every issue. As a single major, who specializes in politics, I



have learned a lot about politics. Nonetheless, of all things, politics is simply not something you can just learn in a classroom setting. You must experience it, and during my time as an intern for the Governor of the Commonwealth of Massachusetts, I was indeed able to learn about and fully experience the political process of the United States

and all it entails.

I was delighted when I first learned that I was accepted as an intern. At that time, I was already accepted as an intern by a private institution in Washington D.C. and was planning to go down to the capital. Not only did the institution expect me to work forty-hours a week, I was worried about the cost and all other complications of temporarily moving to Washington. Furthermore, I was studying for the GRE, which I had to take by the end of the summer. Therefore, being accepted by the Government of Massachusetts, much closer to home, was quite a relief.

At the State House, I was placed to work in the office of the Governor's Council, an elected eight-member body, which provides advice and consent on various matters, such as judicial nominations, to the Governor of Massachusetts.



My duties included assisting the council and preparing documents for various weekly hearings and assemblies as well as dealing with the public in person and by phone.

Perhaps, the most important aspects of the internship program were what I learned outside of my regular duties. While I was not taking care of the Governor's Council's businesses, I was able to attend various house and senate sessions, hearings, speaker series, committee meetings, and educational lectures. During house and senate sessions, I was able to learn about how bills are suggested and passed. During hearings, not only I was able to learn about how people and interest groups can directly bring and argue their support for certain bills but was also able to learn about many of the issues that were brought up themselves. The committee meetings, where experts appointed by representatives or senators discuss technical aspects of certain bills, were some of the most interesting sessions I attended as I was able to understand how creation of a single bill could be so complex. Often times, when I came back from house and sessions or committee hearings, my supervisors would explain to me what aspects of those sessions were relevant, which interest groups were involved, and how they will affect the political bills or progress. These lessons were important in that they fully showed me all the different, unseen factors that a democratic process involves. Similarly, educational lectures series, which brought outside experts to talk about contemporary issues, was equally informative. I was able to listen to and discuss with experts on issues such as health care and economy. Another activity I engaged in was helping journalists and academics with research on governmental matters, which also gave me an insight into how news articles and academic articles are researched and written. The most helpful aspect of these activities was the speaker series from the government employees. The series taught me how internships in the State House could help make connections and win your future jobs.

The highlight of the internship program was when Michael Dukakis, a highly respected former-Governor of Massachusetts and a former-presidential candidate, came to the State House to speak. Governor Dukakis' lecture about becoming passionate about politics was perhaps the most inspiring lecture of the entire summer. Even better was when he kindly stayed after the lecture to talk with students. While I understood that Governor Dukakis' views and my views on many issues differed, I decided to engage him anyway after the lecture, and so I had an opportunity of having a very informative and interesting debate with him on issues such as

health care, social security, and economy. Even though my views have not changed as a result of the debate with Governor Dukakis, he did truly open my eyes to even more diverse array of perspectives, ideas, and solutions to contemporary problems.

As I have mentioned before, politics is not merely about knowledge. It is also about the process and also your ability to muddle your way through many different factors involved in the process without losing the sight of your ideals. A great politician holds highly moral ideals, appeals to idealism, and at the same time manipulates these different forces in politics to achieve his ideals. An average politician, on the other hand, adheres to these different forces in politics and simply sways with the wind. As a single politics major, who has been studying nothing but politics past three years and as someone, who is strongly interested in going into politics in the future, perhaps not as an elected official, but certainly as an advisor on policies, the internship experience in the State House was a highly valuable one. I would have known but would have never truly experienced the complexity of politics, unless I could work side-by-side with actual politicians.

I would like to close my writing by extending my gratitude to the Korean 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for giving me this brilliant opportunity. There are very few Asian Americans, let alone Korean Americans, in American politics today. I believe that is the case not only because Asian Americans find it difficult to climb up the political ladder but also because proportionally less Asian Americans are interested in politics. Even at my college, Brandeis University, I always find that proportionally less number of Asian Americans is majoring in International and Global Studies or Politics. Even Asian Americans, who have interest in politics, often choose legal studies, economics, or business. That is not to say that there exists no Korean who has achieved high positions in American Politics. Victor Cha, currently a professor at Georgetown University and an advisor to the think-tank CSIS, was the former-Director for Asian Affairs in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of the White House and was President George W. Bush's top advisor on North Korean affairs. If more Asian Americans simply choose the path of politics, I am certain that we will see more Asian American politicians and government officials in the United States, and I believe the KACL is doing a wonderful job giving opportunities to as well as motivate Korean Americans to become involved in politics. I hope the organization all the success in its future endeavors.

# 인턴십을 통해 꿈을 구체화하는... Clear Vision: Attained through Internship

by Claire Boreum Lee

**개인적으로** 나는 정부 분야의 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정확히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정치 분야에는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곤 했다. 흔히들 정치계라 하면 말쑥한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모임에 참석해서 세계에서 발생하는 난제들을 해결하지는 못하면서 그저 논의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곤 한다. 하지만 나는 여러 해 동안 정치학 과목과 역사 과목을 수강하면서 세계의 중요한 이슈들에 대한 논쟁을 듣게 되었고, 그 결과 장차 정치계의 일원이 되어 적극적으로 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때까지 더 공부하고 경험을 쌓으면서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나는 이번 인턴십을 통해 먼저 정부의 종합적인 체계에 대해, 그리고 이 나라의 복잡한 정치 구조에 대해 얼마나 무지했는지에 대해 깨닫게 되었다. 13년간 미국에 살면서, 나는 많은 미국인들이 지방 정부와 중앙정부의 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고도 살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종종 보스턴글로브지와 뉴스 웹사이트들을 통해 정치계에 대해 관심을 키워왔다. 특히 신문은 정부 조직과 직접 접할 수 있는 매개체인 것 같다. 정부조직의 속성과 절차들에 대해 읽으면서 나는 이 분야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또한 직접 경험하기 전에는 그것에 대해



어떤 결론도 내리지 말자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나는 정부에 대해 지식을 쌓고 직접 경험하기 위해 인턴십에 지원하게 된 것이다.

인턴십을 하는 첫날 나는 어떻게 12 주를 채울 수 있을지 두렵기도 하고 의아스러운 감정이 들기도 했다. 나는 인력관리실에 배정되었는데, 이곳은 헌법지원실과 방을 같이 쓰고 있었다. 따라서 나는 주지사 비서들

및 다른 인턴들과 교류할 기회가 많았다. 처음에 나는 하루에 8 시간씩 인턴십을 하는 것이 매우 느리고 지겨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항상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사항들이 발생하곤 했기 때문이다. 문서들을 팩스로 보내고, 문서들을 스캔해서 보관 및 파일화하는 일, 전화를 걸고 받는 일, 주정부청사에서 길 건너에 있는 국무부 사무실에 문서를 배달하는 일 등등. 사무실은 항상 북적거렸다.

아름답게 장식된 주정부청사의 대리석 계단을 걸을 때마다 나는 이렇게 영예스럽고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건물에서 인턴십을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늘 감사한 마음을 되새기곤 했다. 매사추세츠주의 정치적 심장부에서 일하게 됨으로써 나는 정치계의 모든 측면들을 접할 수 있었다. 즉 문밖에서 진행된 다양한 시위들, 관광객들, 신문 기자들, 유명한 상원의원들, 주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유권자들 등등... 이 모든 일들을 목격할

수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주지사 사무실에서 매우 편안한 느낌을 갖게 되었고, 이로 인해 사무실에 있는 다른 직원들과도 의미있는 토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처음 몇 주 동안은 예의를 갖추고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하루 일과를 조용하게 진행해야 했다. 또 사무실 분위기에 익숙해지기 전에는 전화받을 때도 긴장해야 했다. 심지어 머리를 숙이고 목소리를 낮춰서 아무도 듣지 말기를 바라기도 했다. 지금 돌아보면, 그런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비결은 실수하거나 질문을 던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사교적이고 자신감 있게 행동하는 것이라는 점을 배운 것 같다. 또한 내가 수행한 인턴십의 궁극적인 목적은 개인적인 안목과 인간관계를 넓히기 위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것이었다는 생각도 든다.

나는 인력관리실에서 일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온라인으로 행하는 배경 체크를 돕고, 또한 '일일 임시 결혼집례 임명'에 관한 업무도 도왔다. 여기서 '일일 임시 결혼 집례 임명'이라는 것은 성직자가 아닌 사람이 신랑 신부의 결혼을 집례해서 결혼증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루 동안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두 가지 임무를 수행하면서 나는 지방 정부의 여러 가지 복잡한 법 조항들에 대해 배우게 되었다. 심지어 메사추세츠주에 있는지조차 몰랐던 마을이나 도시들을 이름도 알게 되었다. 매일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정보를 입력하는 작업을 통해 나는 마이크로 소프트웨어는 물론 다른 데이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도 다루는데 익숙해졌다. 그리고 주정부가 순조롭게 돌아갈 수 있도록 순간순간 필요한 일들을 수행할 수 있었다. 나는 대부분의 메사추세츠주 주민들이 주지사에게 만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때로는 전화를 통해 어려운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도 있어서 그것들을 해결해야 할 때도 있었다. 그 후로 어떤 전화도 받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게 되었다.

이 외에도 인력지원을 위해 참고할 수 있도록 메사추세츠주의 법들을 소책자로 만드는 작업을 했다. 각종 법령, 법조항, 법문구들을 검토하면서 나는 법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다. 이 작업을 끝내는데 약 한 달이 걸렸는데, 그것은 법들이 지닌 모호한 성격 때문이었다. 또한 법령들 간의 혼동으로 인해 나는 종종 수퍼바이저에게 질문하고 함께 토론하기도 했다. 다양한 법령과 법조항들에 관한 지식을 축적하면서 나는 침묵으로 자리를 지키면서 실수를 저지르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질문을 던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을 배웠다.

내가 경험한 인턴십의 또 다른 측면은 주지사가 행한 강연들에 참여하는 특권을 누릴 수 있었다는 점이다. 그곳에서 우리 인턴들은 주청사의 여러 직원들과 직접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주지사를 만날 수 있었다. 개인적으로 주지사와 약속도 하고, 주지사의 강연을 두 번이나 직접 듣는 영예를 누리기도 했다. 주지사가 행한 강연들은 직원들과 인턴들 간의 대화로 이루어졌다. 이곳에서 직원들은 개인적인 일화들을 소개하면서 어떻게

주지사를 위해 일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설명하곤 했다. 나는 직원들이 쏟아놓는 이야기들에 감동을 받기도 했다. 이번 인턴십으로 인해 나는 다른 정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보스톤 지역의 노숙자숙소에서 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게 되었다.

주청사에서의 인턴십은 지금까지의 내 삶에서 얻은 경험 중 가장 교육적인 경험이었다. 내가 겪은 경험에서 얻은 가장 중요한 교훈은 사회적 관계망형성의 유용성이다. 다른 동료 인턴들과 인생의 목표를 나누는 좋은 친구로 사귀게 되었을 뿐 아니라, 사무실 수퍼바이저와도 매우 가까운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매사추세츠의 중심부에서 일함으로써 나는 이미 정치계에 속하고 있다고 생각하곤 했다. 매사추세츠주의 수도인 이곳 보스톤의 법적인 기능에 대해 많은 지식을 얻게 됨에 따라 나는 앞으로 계속 보스톤에 살면서 바로 이곳에서 내 인생의 꿈을 실현해 나가기로 결심하게 되었다. 특히 앞으로 법대학원에 진학하여 좀 더 전문적인 법지식을 쌓아갈 계획이다. 나는 이번 인턴십을 통해 앞으로 정부 분야와 다른 여러 정치 분야에서 일하리라는 꿈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언젠가 나 자신 현 정부체제를 개선하고, 미주 한인 공동체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나는 다음 세대의 한국계 미국인들이 국제 분야에 많이 진출해서 한국 사회를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다. 우리는 계속 변화하고 있고 다양화되고 있고 복잡하게 변해가고 있는 세계에 살고 있다. 미국이 바로 그런 나라이다. 나는 미국의 문화를 적극 수용하면서도 한국계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장래 한국계 미국인들의 분명한 자기인식과 역량강화가 없다면 두 가지 문화 사이의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 할 것이다. 이번 주청사에서의 인턴십으로 인해 나는 한국과 미국이 더 좋은 동맹국가가 되는데 나 자신 어떻게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고, 또한 미국 사회에서 한국계 미국인들의 복지를 대변할 수 있는지에 대해 보다 분명한 비전을 갖게 되었다. 이런 기회를 주신 뉴잉글랜드 한인 시민권협회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 For as Long as

I can remember, I have always been interested in government. I cannot exactly identify where this interest originated, but in my mind, the political domain presents a window of countless opportunities. To many, politics paints a dull picture consisting of men in stuffy suits partaking in meetings that never seem to solve the conundrums produced by the world. However, after years of sitting in politics as well as history classes and listening to controversial issues occurring

around the globe, I came to await the time when I could be a member of the political arena and actively offer my voice.

Overtime, I realized how much I did not know about the general government system, let alone the complicated political scheme of this country. Having lived in the United States for around thirteen years, it was obvious to me that it is inevitable for an American resident to remain unaffected by local and federal government decisions. Nevertheless, I wondered how I could be deeply immersed in a topic when it seemed that there was so much I did not know about it. Regardless of my observations, I made efforts to foster my interests by frequently keeping tabs with the Boston Globe, and quick feed sites such as Digg for news updates. After all, a newspaper is one direct medium that conjoins constituents with the government. Reading about the elaborate nature of the procedures and structures of the government stimulated my interest, and it led me to conclude that I could not confirm my interest unless I had a firsthand experience. It was time that I expanded my knowledge and to directly peer into government.

My first day of the internship left me feeling intimidated and wondering how the twelve weeks would end up for me. I was assigned to the Personnel Office, which shared an office space with the Constituents Services, which allowed me to interact with more Governor's aides and interns. Initially, I imagined that the eight hour work day would move painstakingly slowly, but that was not the case. There was constantly something that required attention. From faxing, filing, and scanning documents, answering and making calls, completing deliveries within the State House and across the street to the Secretary of the Commonwealth, the office was always busy.

Each time that I walked down the marble steps in the beautifully decorated halls of the State House, I never ceased to feel grateful at having the opportunity to work in such a prestigious and historically significant building. Being situated in the political nucleus of Massachusetts, I was able to view all facets of political life: from witnessing various protests outside the gates, to tourist groups, to news reporters, famous senators, and constituents demanding or declaring support for the Governor.

Eventually, I became very comfortable in the office, which permitted me to have meaningful discussions with other workers. However, there were some moments within the first few weeks when I stayed mostly quiet throughout the day, in

an attempt to appear polite and to deliver an acceptable first impression. Before I was accustomed to the atmosphere of the office, my level of self consciousness was so high that whenever I answered a call, I tilted my head down and lowered my voice in hopes that no one would be able to hear my phone conversations. Looking back now, I learned that the key to success in such an environment is to be outgoing and confident, unafraid to face mistakes and to ask questions. After all, the ultimate goal is to meet as many people who share similar interests as possible in order to expand one's information base.

Because I was in the Personnel Office, I regularly assisted with online background checks, and One Day Marriage Designations. The latter is a marriage license granted to a non clergy member to wed two parties for one day. By working with these two projects, I learned a lot of intricate details of the local laws, and the names of towns I did not even know existed in Massachusetts. Not only did I acquire expertise in Microsoft excel and other internal data software by repeatedly entering information into the computer, but I was also exposed to the minute contributions that play a part in permitting the state to function smoothly. Overall, I discovered that most Massachusetts residents are content with the Governor, but there were a couple instances when I had to cope with difficult callers on the phone, thereby preparing me for any type of call that I might receive in the future.

Additionally, I worked on a project that compiled the laws of Massachusetts together into one booklet as a reference for the Personnel Aides. Having to review various statutes, clauses, and principles, I came to have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law. This project took me about a month to complete due to the arcane nature of the law, but the confusion of the statutes forced me to ask questions and actively interact with my supervisor. During the process of accumulating knowledge on a variety of statutes and rules, I learned that asking a million questions is better than sitting silently and making mistakes.

Another aspect of the internship I thoroughly enjoyed was the privilege of attending the Governor's Lecture Series, where interns had the opportunity to directly converse with the State House staff, and to meet the governor. I have the honor of saying that I shook the Governor's hand and directly hear him speak twice. The Lecture Series were more of dialogue between the staff and the interns, where the staff, by sharing

personal anecdotes, explained how they came to work for the Governor. Through the stories of the employees, I grew inspired. The internship also opened up opportunities for me attend other political events and to volunteer in shelters in the immediate Boston area.

The internship at the State House was the most educational experience I had thus far. One major lesson I drew from the experience is the usefulness of networking. Not only did I come to meet other fellow interns as great friends that shared my goals, but I came to have close relationships with my supervisors as well. Working directly in the core center of Massachusetts only served as a personal reminder that I belong in the political world. As I have a much improved understanding of the legal functions in Boston, I plan to reside in Boston and develop my career in the capital of Massachusetts. I can confidently say now that I will attend law school and continuously work to further my education, because there will never be an end to what I do not know. My time at the State House confirmed my dream of working within government, and made me realize that I want to explore other areas of politics to acquire more experience and to someday, offer a voice that will ameliorate the current government

system and importantly, to strengthen the Korean community.

More than ever, I acknowledge the fact that is crucial for the next generation of Korean Americans to arise to the international arena and represent Korean society. Living in an ever changing, diversifying, and complicated world, especially in the United States, it is clear that preservation of the Korean identity is crucial. The American-Korean cultural balance cannot be achieved without the vital interest and strength of future Korean Americans. The internship at the State House provided me with a clear vision of how I want to be a strong proponent in advocating for the welfare of Korean Americans in our society as well as building the bridge for a better alliance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시민협회의 제21호 회지 발간을 축하합니다.

## 주 보스톤 총영사관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총영사 (Consul General) : 박강호

박재휘 부총영사, 이은철 영사

One Gateway Center, 2nd Floor, Newton, MA 02458

Tel: 617-641-2830

# The Impact of my Heritage on the 2011 Summer Internship Experience

by Soo Mee Yoon

As a first-generation Korean-American, I have always been proud of my heritage and wanted to find ways to act as a liaison between the Korean community and the American community I grew up in. One of the biggest reasons I was so grateful for the opportunity to intern for Senator John Kerry was because he



supports many of the same ideals as the Korean 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 (KACL) and myself. For example, I was in the office when the Korean Ambassador visited Senator Kerry to discuss the US-Korea Free Trade Agreement in an effort to boost bilateral trade. As a summer intern, I was able to see the way in which politics goes beyond what is portrayed by the media in the news. In reality, it is much more rooted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While large issues such as the economy, healthcare and education may be at the forefront of political debates, the basis of these issues stem from the concerns of individuals in local communities.

On a daily basis, I was asked to converse with constituents on the phone, research grants, and write citations and response letters. I was assigned to work with Meghan

Leahy, the policy advisor who deals with disability, environmental, and small-business issues. At my interview, I was asked what kinds of issues interest me most, and there was no doubt in my mind to respond with small-business issues. I have seen first-hand what it takes to keep a small business afloat because my father has owned a

Korean-Japanese restaurant for over twenty-five years. Since I have seen how much the economy has affected my father's restaurant, I was more personally invested with helping constituents who needed assistance with their businesses. In particular, it was great having the Small Business Association as a resource to provide government loans to support small businesses because they are such an essential component of the Massachusetts economy in terms of revenue as well as employment.

A unique aspect of the internship was the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community service because it was a way to improve people's lives without having to go through the political processes such as policy reform. I was able to work directly with various communities in Boston doing things such

as serving lunch at the women's shelter on Newbury St., organizing an elementary school field day, and painting a middle school. My favorite community service activity was teaching English at the Jewish Vocation Services in Boston because the majority of the students had just arrived in America, and were looking to learn English to start their lives in America. It reminded of how the KACL helps members of the Korean community fill out their paperwork to apply for American citizenship because there are so many Korean immigrants who do not speak English, but are capable to become successful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The refugees that I helped often needed help with preparing for interviews as well, and it was so rewarding when they would return informing me that they had received job offers.

I also happened to be working in Senator John Kerry's office during the time of the debt crisis, which was a chaotic and significant time in modern American politics as well as the office. The phone was ringing of the hook with calls from concerned Massachusetts residents, and the best thing we could do is reassure them that Senator Kerry was doing his best to work out a deal with the Republican Party and preserve social security checks. It made me realize how many people depend on Senator Kerry to help keep the nation going, and to make their voices heard.

Aside from completing tasks given by Meghan, I also became much more aware of what was happening in Massachusetts because I was encouraged to read the news whenever I had free time. Becoming aware of current events made me realize just how big of a role politics plays in our daily lives because politicians such as John Kerry are proactively striving to solve problems that face our daily lives. John Kerry also recognizes the accomplishments of citizens who better the community through their work. Throughout the summer, I helped send out citations to these individuals and I think that receiving a citation, or congratulatory note from someone as esteemed as Senator John Kerry inspires community members to continue their positive contributions and inspire others as well.

Last but not least, I would like to thank Kyunghae Kay Lee, President, and the KACL Board of Directors, who provided me with this once in a life time opportunity. I will carry experiences from this internship on with the rest of my life, and apply what I learned to my future endeavors. I took this internship as a rare opportunity to insert the Korean identity into American politics, which is a field dominated by white Americans. Korean Americans have the ability to play a significant role in the future of American politics, and deserve to represent their people who enrich the population of the United States.

시민협회의제21호회지발간을 축하합니다.

#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The Korean American Assn. of Rhode Island

회장/백옥진, 이사장/황길남  
임원 및 회원 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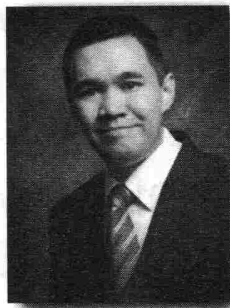
P.O. Box 9142, Providence, RI 02940

Tel: 401-368-0467



## Ben Smith for Judge "Meet Ben"

Benjamin Smith는  
2001년 시민협회의 정치인턴 수혜자로서  
MA주 Attorney General's Office에서 인턴을 했고,  
BU Law School을 졸업한 후 Texas로 이주하여  
Collin County의 Chief Felony Prosecutor로 근무하다가,  
이번에 District Court Judge(Collins County, Texas)로 출마하였다.  
또한 그는 다년간 시민협회의 사무총장으로 봉사하시다가  
플로리다로 이주한 김명기씨의 조카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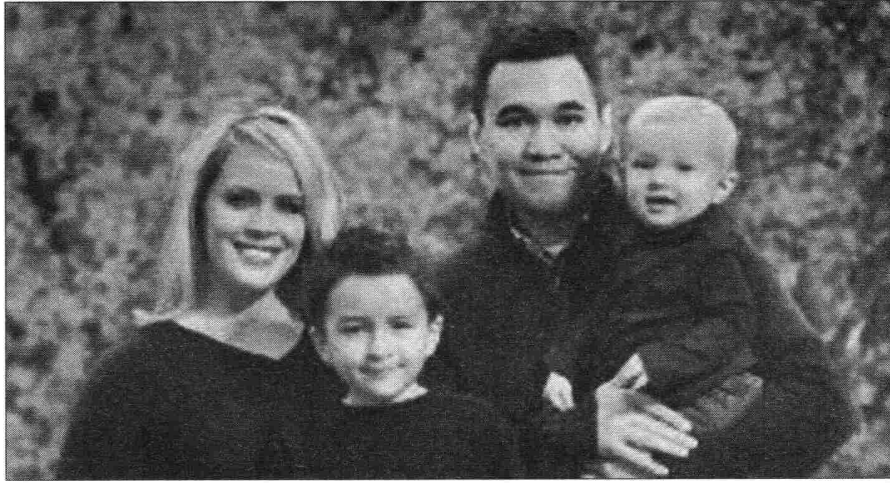
"As the son of a career Air Force serviceman, I was fortunate to live all over the world during my childhood. After my father retired from service, I attended Boston University on a full scholarship and earned my undergraduate degree. After spending several years working as a writer, I later returned to Boston University and earned my law degree. In 2002, I also had the opportunity to study law at Oxford University in England, where I met my beautiful wife, Rebecca. We married and moved to Texas, where Rebecca's family was located.

During law school, my focus was civil litigation and I had the opportunity to help several indigent clients in divorce, unemployment, and disability hearings. Upon being licensed to practice law, I represented a woman whose children had made an outcry of sexual abuse against their father. After successfully obtaining a protective order and filing a custody modification, I felt called to serve victims of crime by pursuing justice as a prosecutor. Initially I was hired as a prosecutor in the Kaufman County District Attorney's Office and I have been in the Collin County District Attorney's Office for the past 7 years. I have handled over 5,000 criminal cases and more than 100 jury trials, from misdemeanor DWI to capital murder. During my career in Collin County, I have served as Chief Felony Prosecutor in the



Trial Division, Second Assistant District Attorney, Chief of the Misdemeanor Division, and most

Attorney's Office. A prosecutor's highest obligation is to seek justice. As district judge, I would continue



recently as Chief of the Special Prosecution Division, which focuses on the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of white collar crime. During my career I have tried a number of high-profile cases, and was the first prosecutor in Collin County history to obtain a conviction from a jury in a mortgage fraud case.

I have been happily married for 9 1/2 years to Rebecca, a 3rd grade teacher, and we have 2 boys, Jackson, 6, and Lincoln, 1. As a member at Cross Road Christian Church, I help with the children's activity hour and with housekeeping. I am also involved with the Reach mentor program in McKinney ISD.

Running for judge of the 380th district court is the culmination of a lifelong pursuit of justice. I believe that nothing trains a lawyer better for the district bench than the District

to serve justice and safeguard the constitution, which I value dearly.

Please visit his Campaign Website today and register your support! ; <http://bensmithforjudge.com/>

Please click "DONATE NOW" or "CONTRIBUTE" and register you as his supporter and donate \$25 for his campaign!

His Facebook; <https://www.facebook.com/pages/Ben-Smith-for-Judge-380th-District-Court/195251173895347>

Other web site for your info; <http://www.collincountyda.com/specialprosecutions.htm>

### 감사의 글

#### Brian Kim(2009 정치 인턴)과 Benjamin Smith(2001 정치 인턴) 동정

존경하는 시민협회의 이경해 회장님 그리고 김성균 이사장님과 모든 이사님들, 지역 사회에 늘 묵묵히 봉사하시면서 수고가 많으시지요

가까이에서 정성을 다해 함께 하며 도와드리지 못함을 늘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사과와 함께 힘찬 응원과 격려를 삼가 보내며, 신년에도 더욱 번영하는 시민협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2009년도 시민협회의 정치인턴 수혜자로서 뉴햄프셔주 주지사 사무실에서 인턴을 했던 Brian Kim은, 현재 Bowdoin College의 Junior로서,

1,2학년 때 Class Treasurer로 선출되었던 이래,

현재는 Student Government의 Treasurer로서, Student Activities Funding Committee의 Chair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1년으로 기억합니다만 역시 시민협회의 정치인턴 수혜자로서 MA주 Attorney General's Office에서 인턴을 했던 Benjamin Smith는, BU Law School을 졸업한 후 Texas로 이주하여 Collin County의 Chief Felony Prosecutor로 근무하다가,

이번에 상기와 같이, District Court Judge(Collins County, Texas)로 출마하였습니다.

어렵게 자란 제 조카의 성장을 감사하고 격려하면서,

어려웠던 시절에 큰 기회를 주었던 뉴잉글랜드 한인미국 시민협회에

본인도 늘 기억하며 감사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당선을 위한 시민협회 임원 여러분들의 성원과 지지,

기도를 삼가 간곡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김명기 올림 (Michael M Kim)



**재외동포재단의  
제14회 세계 한인 차세대 대회**

By Hanna Kim, Esq.

**Introduction of the KACL-NE at the  
Overseas Koreans Foundation's  
14th Annual  
Future Leaders Conference**



**Last** October, I was fortunate to have been selected as a delegate to attend the 14th Annual Future Leaders Conference (제14회 세계 한인 차세대 대회) hosted by the Overseas Koreans Foundation (재외동포재단). Over ninety young professionals of Korean descent from all over the globe gathered for three nights and four days in Seoul and partook in a packed schedule of events that included networking receptions, visits to Korean cultural sites including the Prime Minister's residence and Korea House (한국의집), and speeches and lectures by prominent leaders including Rhea S. Suh, Assistant Secretary for Policy, Management and Budget at the Department of the Interior, Jae-Bum Lee, CEO of Kakaotalk, and Hwang-Sik Kim, the Prime Minister of Korea.

Despite the plethora of attractive events, many of the attendees stated that the heart of the conference were the forums wherein certain future leaders were chosen to speak about the organizations they were involved in back in their respective Korean communities.



provides funding and sponsorship to select organizational applicants.

All in all, the conference has produced valuable contacts for the KACL-NE both nationally and abroad. The experience underscored my understanding of the importance for Korean communities, both locally and abroad, to inspire and learn from one another in order to optimally serve the Korean diaspora.

I would like to thank Kyunghae Kay Lee, President of the KACL-NE, Eun Chul Lee, Consul, Korean Consulate General in Boston, and Rev. Sung H. Kim, KACL-NE board member, for supporting my application to the conference. Any questions regarding the conference or the presentation may be submitted to [hk2302@gmail.com](mailto:hk2302@gmail.com).

I was kindly asked by the Overseas Koreans Foundation to make a presentation introducing the Korean 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KACL-NE). The presentation was well received by the attendees who were impressed with the organization, its mission and the various projects it is involved in. Many even expressed their interest

in starting similar projects and programs in their respective organizations. For example, the Korean American Society of Houston (KASH) conveyed its interest in starting its own intern program and in exploring the possibility of intern exchanges with the KACL-NE. At the conference, I also learned that the Overseas Koreans Foundation

시민협회의 제21호 회지 발간을 축하합니다.

## 로드아일랜드 한인 경제인 협회

Korean American Commerce & Trade Association of R.I.

회장/ 박헌조 및 임원 일동  
617-515-5627

# 2011년 시민협회 활동보고

●사무총장 박재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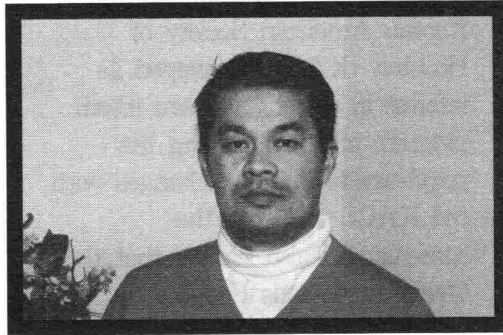
## 이사회와 임원회

1차 이사회 (장소: 김성군 이사장 자택)가 2월26일 (토요일)에 개최되어, 정치인턴 모금만찬 준비현황의 보고, 회지발간 준비, 재무보고 및 이사회비 현황보고가 있었으며, 2011년 사업계획과 유권자 파악 DATA에 바탕하여 구체적인 유권자 등록 권유사업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2차이사회 (장소: 박필수 이사택)는 7월30일(토요일)에 성요한교회에서 치뤄진 “시민권 취득 워크샵”이 끝나고 있었으며, 정치인턴 후원 모금만찬 평가 및 배치보고와 더불어 “21차 정기총회” “20호 저널 내용”에 대한 평가와 토의, 그리고 케임브리지 시의원 인 LELAND CHEUNG의 재선을 지지하는 이사들의 후원행사 참여를 촉구하였다.

3차이사회 (장소: 청기와식당)는 9월10일에 있었으며, 정치인턴 근무현황보고 11월선거 유권자등록 권유 활동, 재무보고가 함께 있었다. 정기총회와 저널 21호 발간에 대한 토의, 그리고 새로운 이사? 김한나 변호사를 선출하였다.

2011년 4월 2일 (토) 오후 6시, Lexington소재 Lexington Elks Club에서 약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금만찬이 개최되었다. 유미라양의 사회로 진행되었는데, 박강호 보스톤 총영사의 축사에 이어, 와싱턴DC 지역에서 한인으로서 최초로 전문로비스트로 활동 중인 THOMAS KIM (시민협회 1호 정치인턴출신)의 강연이 있었으며, 감사패증정 순서에 이어,



2011년 인턴으로 박성태 (MASS주지사 사무실) 그리고 윤수미 (연방 상원의원 존-케리사무실)가 선정되었으며 장학금수여가 함께 있었다. 보스톤 한인 합창단, MIT대학 “우리” 풍물놀이패, NE한국무용단의 공연이 이어졌다.

8월초에, FTA통과를 돕기 위해, 이경혜회장을 주축으로 와싱턴DC에 방문하여 연방 상원의원 존케리 그리고 스캇 브라운의원을 직접 만났다. 미-전역에서 모인 한인동포와 함께 축구랠리에 동참하였고, 뉴-잉글랜드를 대표하는 시민협회의 위상을 보여주는 행사였다.

1996년에 최초로 시작하여, 올해로 22번째 이뤄지는 워크샵이며, 7월30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성요한 교회에서 개최되어 총 30여명이 참석하였고, 특별히 이 행사에 정치인턴학생인 박성태, 윤수미, 김성희 등 많은 자원봉사자의 참여와 도움이 있었다.

한인의 권익신장을 돕는 지역 정치인 돕기 사업은 시민협회가 늘 추구했던 사업이며, 케임브리지-아시안 시의원인 LELAND CHEUNG의 재선을 돕기 위해, 8월24일 저녁7~9시까지 케임브리지소재 “샤부야 식당”에서 여러이사와 케임브리지에서 사업하는 한인들이 동참하는 모금행사를 가졌다. 당일 \$1,200을 모금하여 재선캠프에 전달하였다.

# KACL-NE Financial Statement

## Income Statement

Membership	\$1,470.00
Board of Directors Due	\$1,800.00
Journal Ad.	\$1,450.00
Political Internship event	\$5,180.00
Donation	\$5,820.00
interest	\$21.05
Total	\$15,741.05
Pre. Balance	\$24,273.70
Grand Total	\$40,014.75

## Expense

Political Intern	
Event	\$4,951.84
Scholarship	\$4,000.00
Printing	
Journal	\$3,000.00
Other	\$469.84
Donations	\$1,161.41
Membership	\$300.00
Meeting (Board, Annual)	\$620.00
Total	\$14,503.09
Balance	\$25,511.66
Grand Total	\$40,014.75

## 2012년 수입 · 지출 예산

### ●수입 예산

회비 : \$10x150명	\$1,500.00
이사회비 : 20명	\$3,000.00
협회지 20호 광고 수입	\$3,000.00
정치인턴 모금파티(*)	\$12,000.00
기타 찬조비	\$1,000.00
총계	\$20,500.00

### ●지출 예산

협회지 20호 인쇄비, 발송비	\$3,000.00
유급 사무요원 보수	\$2,000.00
광고비, 타 기관 지원비	\$1,000.00
이세 활동 지원비	\$1,000.00
정치인턴 장학금 (*)	\$5,000.00
정치인턴 모금 파티 경비 (*)	\$5,000.00
제 22회 총회 경비	\$500.00
전국 대회 참가비	\$1,000.00
은행 경비 및 기타	\$200.00
우편비/사무비/비품비	\$1,000.00
예비비	\$800.00
총계	\$20,500.00



## 역대 정치 인턴 명단

1998	Thomas Kim	Georgetown University School of Foreign Service	Senator John F. Kerry's Office in Washington D.C.
1999	Caroline Kim	Barnard College	Senator John F. Kerry's Office in Washington D.C.
	Daniel Kim	Suffolk University Law School	Attorney General's Office
	David Lee	Boston College	House of Representative / House Committee on Rules
	Sarah Park	Harvard University	Mass. State House / Gov. Cellucci's Press Office
2000	Eun Young Choi	Harvard University	Senator John F. Kerry's Office in Washington D.C.
	Song Yee Han		
	David Kim	Tufts University	Senator Edward M. Kennedy's Office in Boston
	Benjamin Smith	Boston University	
	Irene Park James Uhm	Bowdin College Tufts University	State House / Gov. Celluci's External Relations Dept. The Attorney General's Office in Boston
2001	Min Suk Lee	Tufts University	Massachusetts 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
	Yumee Lee	University of Pennsylvania	Mass. Governor's Office
	Unok Nam	Mills College	Senator John F. Kerry's Office in Washington D.C.
	Doohyun Paek	University of Mass-Amherst	Mass. State House, Executive Office
2002	Jennifer Myung	Harvard University	Senator John F. Kerry's Offices in Washington D.C.
	Sonia Kim		
	Yumi Lee	Georgetown University	Senator John F. Kerry's Office in Washington D.C.
	Chan Joung Lee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Information Technology Division of the Mass. Governor's Office
2003	Min Young Lee	Boston College	Massachusetts Governor's Office
	Hee Jin Lee	Harvard University	Senator John Kerry's Office
	Heidi Yoo	Wesleyan University	Senator John F. Kerry's Office in Washington D.C.
2004	Se Yeom Kim	Syracuse University	Massachusetts State House, Executive Office
	Jihun Kim		Gov. Romney's Office
	Jeong Mee Oh	Harvard University	Senator John F. Kerry's Boston Office
	Jia H. Jung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y	Senator John F. Kerry's Office in Washington D.C.
2005	Bornie Chae	U of Massachusetts	Senator John F. Kerry's Boston Office
	Hyejin Yu	U. of Massachusetts Amherst	Massachusetts Governor's Office
	Eliza Chon	University of New Hampshire	Senator John F. Kerry's Office in Washington D.C.
	Jesse Sejin Kim	U. of Mass. Boston	City of Boston Mayor's Office
2006	Angelina Hong	Williams University	Office of Boston City Council At-Large Sam Yoon
	Stephanie Chang	Northwestern University	Massachusetts State House
2007	Michael Dong	Bentley University	Massachusetts Governor's Office
	Younyoung Lee	Georgetown University	Office of Congressman Doug Lamborn
2008	Yeonman Jung	U. of Mass. Amherst	Office of Boston City Councilor Sam Yoon
	Michael Shin	Groton High School, Groton, MA	Office of Boston City Councilor Sam Yoon
	Jaewon Lee,	Tufts University,	Mass. Department of Veterans Services

2009	Michelle Dong Steven Suh Hyun Jung Kim Brian Kim Jae-Hyuk You	Bentley University Univ. of Michigan St. Paul's School Oyster River High Phillips Andover	Massachusetts Governor's Office Massachusetts Governor's Office Boston City Councilor, Sam Yoon (Junior Intern) NewHampshire Governor's Office (Junior Intern) Boston City Councilor, Sam Yoon (Junior Intern)
2010	Bo-Reum Lee Han-Ju Ryu Deborah J. Song Maria Kim	Brandeis Univ. Babson College Smith College North Reading High	Mass Governor's Office Senator John F. Kerry's Boston Office Mass Governor's Office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2011	Sungtae Park Soo Mee YoonG.	Brandeis University Washington University	Mass Governor's Office Senator John F. Kerry's Boston Office

## 2012년 시민 협회 주요 행사 일정 및 주요 사업 계획 KACL Events and Major Activities



	March 3	1st Board Meeting 2012년 1차 이사회 정치인턴 모금만찬 티켓과 초청장 배부
April 14		AFD (Annual Fundraising Dinner) for Young Political Interns 정치인턴 모금 만찬 (장소: Lexington 소재 "Lexington Elks Club")
August 18		2nd Board Meeting and Citizenship workshop 2차 이사회 및 시민권 취득 워크샵
October 6		Annual Meeting 경기총회

1. 회의: 총회 1회, 이사회 2회(3, 8월), 상임이사회 및 상임 임원회 2회, 편집위원회 4회, 특별위원회
2. 출판 및 홍보: 회지 발간 1회, 매체 등 각종 홍보 활동
3. 캠페인: 각종 캠페인 (투표, 유권자 등록, 회원 확보, 법안 반대 및 추진, 한인 정부직 추천, 기타)
4. 시민권 취득 워크샵: 1회 (6월)
5. 기금 모금: 정치인턴 후원 모금 만찬 (4월)
6. 여타 단체와의 유대: 전국 대회 참가, 여타 소수 민족 회의 참가 등



##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2013 Summer Internship Program

The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KACL) invites college and graduate students to apply to its 2013 Summer Internship Program. Interns will be placed in the offices of U. S. Senators, Congressmen, or the State Government, or other places, and they will receive a stipend of \$2,000. At the end of their internship, they will be expected to write a one-to-two page essay describing their experience, which will be published in the Journal of KACL.

KACL is a non-partisan, non-profit organization founded in 1990 to provide a coherent political voice within the community. Through the Summer Internship Program, KACL hopes to encourage the political involvement of young Korean Americans, foster their interest in public policy-related careers, and develop their leadership skills.

### Eligibility Requirements:

- Applicant must be a current college/graduate school student in good standing.
- Applicant must be a US citizen or Permanent Resident of Korean American origin.
- Applicant must be a New England resident or attend a college in New England.
- Applicant must have a minimum grade point average of 3.0 (on a 4.0 scale), along with evidence of leadership abilities and excellent oral and written communication skills.

### Please send the following information to:

Jae B. Park, 160 Main Street, Stoneham, MA 02180

1. A brief essay (less than 500 words, eg why you want to participate in the internship program, how you can benefit from it, and the areas of interest). This will be attached to the application package to the politician's office.
2. Resume Include educational information, work experience, volunteer experience, activities & other interests.
3. Current school transcript.
4. Two letters of recommendation (Addressed "To Whom It May Concern" because it may be forwarded to the politician's office).

**Applications must be postmarked by January 31, 2013**  
**Faxed or e-mailed documents will not be accepted.**

Successful applicants will be notified in March.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all Jae B. Park, at (617)851-3084 (Cell) or e-mail to [jaep64@gmail.com](mailto:jaep64@gmail.com)

For information on KACL, please visit <http://www.javapassion.com/kacne>





#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2013 Summer Internship Program Application

Name: \_\_\_\_\_ (한글) \_\_\_\_\_

Date of Birth: \_\_\_\_\_

Social Security Number: \_\_\_\_\_

U.S. Citizen: \_\_\_\_\_ Legal permanent resident: \_\_\_\_\_

Current Telephone Number: \_\_\_\_\_

Best time to call: \_\_\_\_\_

Current e-mail Address: \_\_\_\_\_

Current Mailing Address: \_\_\_\_\_

\_\_\_\_\_  
\_\_\_\_\_

Permanent Address: \_\_\_\_\_

\_\_\_\_\_  
\_\_\_\_\_

Permanent(Personal) e-mail Address: \_\_\_\_\_

Permanent Telephone Number: \_\_\_\_\_

College: \_\_\_\_\_

Major: \_\_\_\_\_ GPA: \_\_\_\_\_

Expected Degree and Year of Graduation:  
\_\_\_\_\_



# 뉴잉글랜드 한인 미국 시민 협회 헌장

## Constitution of the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 제1장 총칙

#### 제1조: 명칭

본회는 뉴잉글랜드 한인 미국 시민 협회 (이하 본회)라고 부른다.

#### 제2조: 위치

본회의 관할 지역은 뉴잉글랜드로 하며, 본회의 사무소는 대 보스톤 지역에 둔다.

#### 제3조: 목적

본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한인 미국 시민의 미국 정치 참여를 적극 권장한다.
2. 한인 미국 시민의 법적 지위 향상과 권익 신장을 적극 추진하며, 시민권자의 권리를 주장하고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주권자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한다.
3. 한인 상호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정치 경제 사회적 여건을 확대하며, 사회 부조리 개선에 적극 참여한다.
4. 한민족의 역사적 전통을 유지, 보존하여 후손에 계승, 개발케 함으로써 민족적 긍지를 잃지 않게 하고, 미국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5. 한미 우호 관계를 증진시킨다.

#### 제4조: 사업

1.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행사를 권장한다.
2. 한민족과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정치인을 지원한다.
3. 한민족의 권익에 관련된 법률의 의회 통과 및 통과 반대를 위한 합법적인 로비 활동을 한다.
4. 한민족의 권익 보호 및 신장을 위해 관련 기관, 단체, 인사에 대한 청원서, 서신 등을 송부한다.
5. 한민족의 권익 보호 및 신장을 위한 합법적 행사를 한다.
6. 한민족의 가정 보호, 청소년 선도 및 노

인들의 복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7. 한인-미국 동포 2세들의 적극적인 정치 활동을 돕는 장려사업을 추진한다.

#### 제5조: 뉴잉글랜드 지역 한인회와의 관계

본회는 뉴잉글랜드 지역 한인회들과 상호 협력 관계를 유지한다.

### 제2장 회원

#### 제6조: 회원의 구분

본회는 정회원, 준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 제7조: 회원의 자격

1. 정회원: 뉴잉글랜드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미국 시민으로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여 소정의 입회 절차를 거친 사람.
2. 준회원: 뉴잉글랜드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미국 영주권자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여 소정의 입회 절차를 거친 사람.
3. 특별회원: 본회의 사업을 후원하는 사람으로써 회장단 또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승인 받은 사람.

#### 제8조: 회원의 의무와 권리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정회원은 결의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고 준회원 및 특별회원은 결의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 제9조: 경관 및 계명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사회에서 자격 정지 또는 제명을 결의할 수 있다.

1. 본회의 회칙 및 세칙을 위반한 사람.
2.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
3.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 제3장 조직 및 임원

#### 제10조: 회의의 종류

본회의 회의는 정기 총회, 임시 총회, 이사

회, 상임이사회 및 임원회로 나눈다.

1. 정기 총회는 매년 10월 중에 회장이 소집하며, 재직 회원 1/3 또는 회원 100명 이상의 출석으로 성회된다.

2. 임시 총회는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4주 이내에 소집하며, 재직 회원 1/3 이상 또는 회원 100명 이상의 출석으로 성회된다. 임시 총회가 불가능할 때는 우편 투표로 대신할 수 있다.

3. 이사회는 이사장, 회장, 또는 재직 이사 1/3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장이 소집하며 과반수 이상의 재직 이사 출석으로 성회된다. 이사회는 매년 2회 이상 소집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회의 2주전까지 심의 안건을 기재한 통지서를 이사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우편 투표로 대신할 수 있다.

4. 상임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당연직 이사, 분과 위원장, 지역 간사 1/3 이상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 이사장이 소집하며 매년 1회 이상 소집하여야 한다.

5. 임원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매년 2회 이상 소집하여야 한다.

#### 제11조: 회의의 기능

1. 정기 총회는 이사회에서 결의 혹은 승인한 사항 외에 다음의 회무를 처리한다.

- 가. 전년도 결산 및 사업 보고
- 나. 신년도 예산 및 사업 계획
- 다. 회장, 부회장 및 이사 선출
- 라. 헌장 개정
- 마. 기타 이사회에서 부의하는 안건

2. 이사회는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업을 연구, 계획하여 총회에 건의하며, 총회 결의 사항의 집행을 협조하고,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 가. 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추천
- 나. 사업별 분과 위원회의 조직

- 다. 분과 위원회의 운영 세칙 인준
- 라. 헌장 개정 추천
- 마. 세칙의 제정 및 변경
- 바. 회원의 가입 (특별 회원 포함), 자격 정지 및 제명
- 사. 회비 책정
- 아. 예산 및 결산안 인준
- 자. 사업 계획 추천
- 차. 고문의 인준
- 카. 기타 총회의 인준을 요하는 사항

3. 상임이사회는 이사회 분과 위원장, 지역 간사 및 당연직 이사로 구성되며, 이사회를 보다 활성화하고 능률화하기 위해서 이사회를 준비하며, 긴급 사업 계획 및 안건을 심의 결정하고 이사회에서 추인을 받는다.

4. 임원회는 회장단 및 지역 간사들로 구성되며, 이사회나 상임이사회에 결의 사항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방법을 구상하고 집행하며, 총회,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에 보고할 제반 사업 보고 및 처리 보고서, 예산 및 결산 보고서를 심의하고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한다.

5. 긴급을 요하거나 필요에 의해서 상임이사회와 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회장이 이사장과 협의하여 소집한다.

**제12조: 회장단의 구성**

1. 회장 1명
2. 부회장 5~6명
3. 사무처장 1명
4. 재무 1명
5. 대변인 1명
6. 협의 약간명

**제13조: 회장단의 선출**

1. 회장 및 부회장은 다음 후보중 정기 총회에서 다수결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가.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나. 총회 30일 전까지 회원 5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에게 제출한 사람.

2. 사무처장, 재무, 대변인 및 협의는 회장이 정회원 중에서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14조: 회장단의 임기**

1. 회장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회장단 중 결원이 생길 때는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으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이다.

**제15조: 회장단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 및 이사회 의 정책 결정에 따라 본회의 운영을 통할한다.
2.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고 임원회를 주관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잔여 기간만 재임한다. 부회장은 본회의 사업을 보다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기능별로 사업을 분담받아 책임 수행한다. 또한 이사회의 각 기능별 위원회의 지침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수행하며, 사무처장과 유기적으로 업무를 연관하여 추진하고, 고문의 자문과 협조를 받는다. 이를위하여 과업수행에 따라 회장단의 인준을 거쳐 수행단 결성, 책임자, 특별위원을 지정하여 운용할수 있다.
4. 사무처장은 본회의 모든 회의록 및 업무 사항에 대한 기록을 보존하고, 회장 및 부회장을 보좌하여 본회 운영을 위한 일체의 사무를 담당하며, 총회에 사업 보고를 한다. 사무총장은 유급으로 한다.

5. 재무는 회비를 징수하고 본회의 재무를 담당하며, 총회 및 이사회에 재정, 결산, 예산 보고를 한다.
6. 협의는 회장 및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본회를 위한 협의 활동을 한다.
7. 대변인은 회장 및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본회의 입장을 대변하고 발표한다.
8. 회장단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9. 회장단은 특별 회원을 추천한다.

**제16조: 이사회 의 구성**

이사회는 50명 이내의 선출 이사와 당연직 이사로 구성되며, 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 감사 2명, 각 분과 위원장 및 지역 간사를 둔다.

**제17조: 이사의 선출 및 임기**

1. 선출 이사는 다음 후보 중 정기 총회에서 다수결로 선출하며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새로 선출할 이사의 수는 총회 전 이사회에서 정한다.
- 가. 이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 나. 총회 30일전까지 회원 3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에게 제출한 사람
2. 이사장 및 부이사장은 선출 이사 중 이사회에서 다수결로 선출하며, 임기는 잔여 이사 임기와 관계없이 2년으로 한다.
3. 감사, 분과 위원장 및 지역 간사는 선출

이사 중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이사의 잔여 임기와 관계없이 4년으로 한다.

**제18조: 이사의 임무**

1. 이사장은 이사회와 상임 이사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 유고 시에는 그 임무를 대행하고 잔여 기간만 재임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제11조 2항의 회무를 의결하며, 분과 위원회에 소속되어 기능을 발휘한다.
4. 분과 위원장 및 지역 간사들은 제4조 사업에 따른 사업들을 각 분과 위원회에서 연구, 검토하여 사업 계획서를 이사회나 상임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이사회의 서기는 이사회의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며 사무처장이 겸임한다.
6. 감사는 회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재정**

**제19조: 수입**

본회의 수입은 회원의 회비, 이사회비, 찬조금, 보조금 및 기타 본 회의 사업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0조: 지출**

본회의 모든 지출은 회장의 결재를 얻어 행하며 증빙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5장 헌장 개정**

**제21조**

본 헌장은 이사회 또는 재적 회원 5분의 1 이상의 서면 제안으로 총회에서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개정할 수 있다.

**부칙**

1. 이 헌장은 총회에서 채택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1996년 현재의 이사장 및 부이사장의 임기는 잔여 임기를 재임한다.

**개정**

1. 제정: 1990년 8월 18일 창립 총회.
2. 제1차 개정: 1994년 10월 1일
3. 제2차 개정: 1996년 10월 19일
4. 제3차 개정: 2005년 10월 29일



# 협회 임원, 이사 명단 및 주소록 Directory of the Officers and Board of Directo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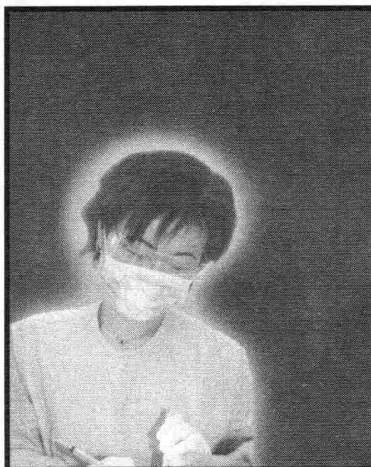
## ● 임원 (OFFICERS)

회장	이경해	President Dong, Kay	103 Chase Run, Stoughton, MA 02072	H: (781) 344-3089 O: (781) 297-5679 Email: kayleebrokers@aol.com
부회장	신상철	Vice President Shin, Sang Chul (PhD)	5 Dewey Rd., Lexington, MA 02420	H: (781) 862-0512 O: (978) 442-0531 Email: sangshinpassion@gmail.com
사무총장	박재범	Executive Director Park, Jae B.	5 Morningside Circle, Woburn, MA 01801	C: (617) 851-3084 Email: jaep64@gmail.com
재무	송기백	Treasurer Song, Gi B.	16 Odyssey Lane, Dedham, MA 02026	H: (781) 461-1333 C: (781) 510-9924 Email: gisong@comcast.net

## ● 이 사 (BOARD OF DIRECTORS)

이사장	김성군	Chairpeson Kim, Song-Kun (Esq.)	160 Main Street, Stoneham, MA 02180	H: (978) 664-1417 C: (617) 799-7033 Email: songkim1@gmail.com
감사	김문소	Auditor Kim, Moon So (DVM)	10 Cardinal Lane, Andover, MA 01810	H: (978) 475-3534 (978) 851-3626 Email: moonsokim@comcast.net
이사	김명기	Board Member Kim, Michael M.	2 Lamprey Lane, Lee, NH 03824	H: (603) 659-6129 O: (603) 659-4845 Email: hegroupp@hanmail.net
이사	김성혁	Board Member Kim, Sung Hyuck	29 Maple St., Florence, MA 01062	H: (413) 584-8448 C: (413) 535-0916 Email: sungh999@gmail.com
이사	김양길	Board Member Kim, Yang-Kil	182 Olympic Ln., N. Andover, MA 01845	H: (978) 691-5108 Email: yangkil.kim@comcast.net
이사	박필수	Board Member Pak, Phil S.	230 Main st., Groton, MA 01450	C: (978) 501-0292 O: (978) 449-0400 Email: Phil.Pak@gmail.com
이사	박형수	Board Member Park, Hyung Soo	20 Winfield Rd., Hingham, MA 02043	H: (781) 413-7816 Email: hhpemail@gmail.com
이사	방경남	Board Member Bang, Kyungnam Kevin	10-12 Cedar St., Wellesley, MA 02481	W: (508) 655-5004 C: (917) 922-2239

이사	안성완	Board Member Ahn, David Seongwan	76 Kent St. #B2 Brookline, MA 02445	H: (617) 739-2990 Email: cptahn@gmail.com
이사	양미아	Board Member Yeung, Mia	7 Hundreds Rd., Westboro, MA 01581	H: (508) 366-9007 C: (508) 728-0832 Email: miajyeung@yahoo.com
이사	이기표	Board Member Lee, Kee Pyo	26 Norcross St., Arlington, MA 02474	H: (781) 643-2958 Email: space_korea@yahoo.com
이사	성 데이비드	Board Member Sung, David	329 Harvard St., Brookline, MA 02446	O: (617) 731-1122
이사	송현미	Board Member Song, Elaine Hyunmee	23 Mason St., Lexington, MA 02421	H: (781) 863-0661 O: (617) 835-7664 Email: elaine.song@nemoves.com
이사	장경우	Board Member Chang, Aaron Jungwoo	160 Main Street, Stoneham, MA 02180	C: (413) 636-5148 Email: dreamerajc@gmail.com
이사	정석호	Board Member Chung, Paul S.	10 Meadowbrook Rd., Hudson, MA 01749	H: (978) 562-0502 Email: koreatraveltour@gmail.com
이사	정옥경	Board Member Ok Kyung LeBlanc	11 Johnson Dr., Newmarket, NH 03857	H: (603) 659-6112 C: (603) 834-2803 Email: grleb61@comcast.net
이사	추경석	Board Member Choo, Kyungseok	311 Lowell St., #2301, Andover, MA 01810	H: (978) 409-2263 C: (315) 527-9623 Email: kyungseok_choo@uml.edu
이사	한문수	Board Member Han, Moonsu	11 Sherrin Road, Newton MA 02462	H: (617) 795-1779 Email: moon.usa@gmail.com
신임 이사	김한나	Board Member KIM, Hanna, Esq.	265 Church Street New Haven, CT 06510	C: (203) 215-8136 Email: hk2302@gmail.com
신임 이사	이문항	Board Member LEE, Moon Hang	963 Eastern Avenue Malden MA 02148	W: (781) 322-2350 C: (781) 325-3406 Email: mlee@prescottandson.com
신임 이사	박영찬	Board Member PARK, Young Chan	410 Great Pond Road N. Andover MA 01845	C: (603) 969-4871 W: (603) 988-7805 Email: dmdpark333@yahoo.com
신임 이사	이유탉	Board Member LEE, Yoo-Taek	412 Parker st., Newton, MA 02459	C: (617) 460-4566 W: (617) 735-9573 Email: hl1kizlee@gmail.com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원장/ 케를 윤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Cambridge Dental Annex**

**캠브리지 덴탈 어넥스**

897 Massachusetts Avenue, Cambridge, MA

**617-871-1482**

시민협회의 제21회 정기 총회의 개최와  
회지 21호의 발간을 축하합니다



뉴잉글랜드 지구

**서울대학교 동창회**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NEW ENGLAND

<http://sites.google.com/site/snuaane>

시민협회의 제21호 회지 발간을 축하합니다.

**이중문화 국제 선교회 NE 지부**  
MA Chapter

이평원 회장 및 임원 일동  
**978-687-2029**

시민협회의제21호회지발간을 축하합니다.

뉴잉글랜드 지역

# 한인교회협의회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in New England

100 Winthrop St. Medford, MA 02155

Tel.(781)393-0004

회 장: 조상연 목사 부회장: 장계은 목사

총 무: 송평구 목사 회 계: 박원빈 목사

실행 위원/ 한상신, 강명석, 최영호, 전덕영, 김영호, 이영길, 조태연, 박찬수, 김태환,  
정경조, 김면진, 김 풀(무순)

미 연합 감리교회

## 성요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함께 어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 격려하고 정직하게 생활하려 노력하  
는 성요한 교회 가족으로 초대합니다.  
[넓은 주차장과 동서 사방에서 오시기에  
편리한 곳에 위치했습니다.]



담임목사 : 조 상 연 목사

- 예배시간 안내 -

주일 새벽 예배: 오전 6시

주일 대 예배: 오전 11시30분

수요일저녁예배: 오후 8시 교회학교초등부: 오전 11시30분

교회학교중고등부: 오전 11시30분, 매주 토요일 오후 7시30분

성요한한국학교: 매주 토요일 오전 9시30분

성요한 한국학교 교장: 김현경

문의 전화(교회): 781-861-7799 교장:978-994-6177

www.sjkschool.com

주소 : 2600 Mass. A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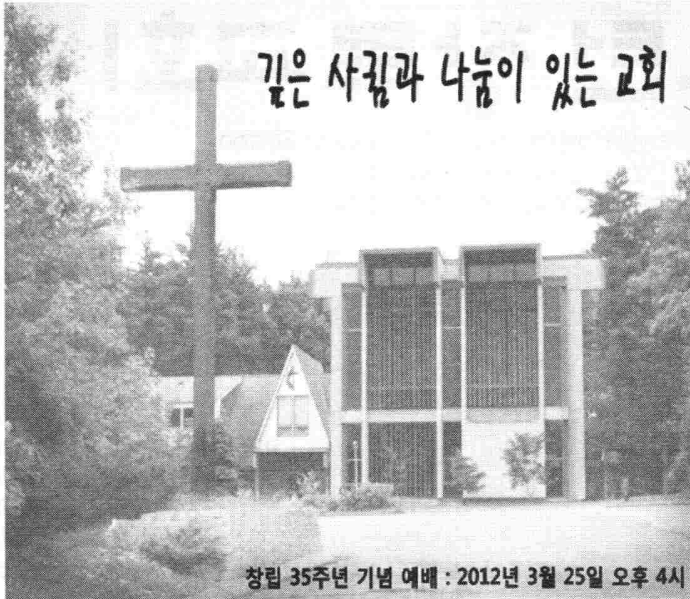
Lexington, MA 02421

전화 : 781-861-7799

팩스 : 781-861-7228

이메일 : Korean@Lexumc.org

**북부보스톤한인연합감리교회**  
NORTH BOSTON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창립 35주년 기념 예배 : 2012년 3월 25일 오후 4시

244 Lowell St. Andover MA 01810 [www.hanboston.org](http://www.hanboston.org)



담임목사 : 김 용 환  
978-470-0621 (교회)  
978-208-0934 (목사관)

[northbostonkumc@gmail.com](mailto:northbostonkumc@gmail.com)

주일 1부 예배 : 오전 8 시  
2부 예배 : 오전 11 시 (동시통역)

영어예배  
어 린 이 : 오전 11시  
중고등부 : 오전 11시

EM Small Group : 주일 오후 1시

새 벽 기도 회 : 오전 6 시 (월 ~ 토요일)

수요 찬양예배 : 오후 7 시 30 분

중고등부 성경공부 : 토요일 오후 6 시

그룹 성경공부 : 안내 978-470-0621

상록회(노인) 사역 : 2, 4째 수요일 10 시

한국학교 : 토요일 9시 30분 ~ 12시 30분

섬기는 이들:

담임목사(Senior Pastor): 한상신 목사 (Rev. Sang-Shin Han)

협동목사(English Ministry Pastor): 단위버 목사 (Rev. Dan Weaver)

행정/교육전도사(Assistant Pastor): 이동근 (DongKeun Lee), 김동일 (Ernest Kim)



**그린랜드 연합감리교회**

Greenland United Methodist Church

87 Great Bay Road, Greenland, New Hampshire 03840-2118

Tel.: (603) 430-2929, (603) 430-1115 Fax: (603) 430-0040

목사관 Tel.: (603) 433-7475

e-mail: [gumck@hotmail.com](mailto:gumck@hotmail.com)

예배안내:

주일예배 -	주일 10:30 AM
주일학교 -	주일 10:30 AM
한국학교 -	주일 1:00 PM
청년부 -	주일 12:45 PM
청소년 -	토요일 6:00 PM
성경공부 -	수요일 7:30 PM
중보기도 -	금요일 7:45 PM

저희 교회는 뉴햄프셔 주의 동북부(I-95 N.) 근처에 있는 Portsmouth 와 Stratham 사이에 위치한 Greenland 에 있습니다. Rt.-33 선상에서 Great Bay Road 로 돌아 들어오 시면 넓은 초원위에 하얀 건물의 교회입니다.

Get off at I-95 North Exit3 in New Hampshire, about 6 miles after the toll gate. At the end of the ramp, there is a set of lights. Turn left onto Rte.33 West Drive: 4.3 miles and then you will see "Great Bay Road" on your right.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 보스톤 장로교회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in Greater Boston

2 Main Street, Hopkinton, MA 01748

교회 (508) 435-4579, 팩스 (508) 435-5467

<집회 안내>

- 주일 예배 (주일) 오전 11시
- 주일 영어 예배부 (주일) 오전 11시
- 주일 오후 찬양예배 (주일) 오후 1시 30분
- 주일 새벽 기도회 (주일) 오전 6시
- 금요 기도회 (금요일) 오후 8시
- 유치부 (금)오후 7:45분, (주일) 오전 11시
- 유년부 (금)오후 7:45분, (주일)오전 11시
- AWANA (금)오후 7:45분
- 중고등부 (금)오후 7:45분, (주일)오전 11시
- 중고등 한어부 (주일)오전 11시
- 장년성경공부 (주일)오전 10시, 오후 2시30분
- 여성성경공부 (수)오전 9시 30분
- 남성 성경공부 (수)오후 8시

교회홈페이지 [www.bostankorea.org](http://www.bostankorea.org)

교회 이메일 : [kpcgbhome@gmail.com](mailto:kpcgbhome@gmail.com)

담임목사 : 전덕영

교수목사 : 심진수

전도사 : 노현경(슈치) 박선진(슈년) 이세현(중고등부) 권승룡(장년)

시무장로 : 송남수 김성인 김재술 김숙서 김충규 김창남

The Korean Church of Boston

The Presbyterian Church (U.S.A.) Founded in 1953

미국 장로교

# 보스톤 한인교회

담임 목사: 이영길 목사관: 781-467-0002

32 Harvard St., Brookline, MA 02445

Tel: 617-739-2663, Fax: 617-739-1366

[www.kcboston.org](http://www.kcboston.org)

1부 주일 예배 - 오전 8: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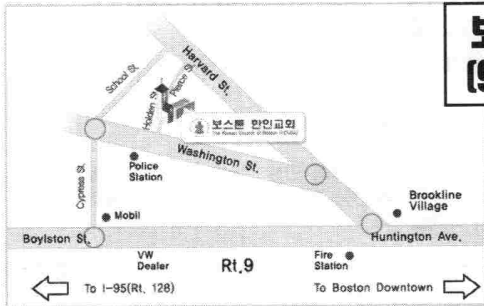
2부 주일 예배 - 오후 12시

(영어 동시통역 제공)

유년, 초등 주일학교 - 오전 11:30분

중고등부 - 오전 11시

**보스톤 한국학교**  
**(978) 509-8708**



성경공부반 안내

- 주일 소그룹 성경공부반 주일 오전 10:30분
- 세례 교육반 주일 오전 10:30분
- 수요 영성 성경공부부 수요일 오전 10:30분
- 청년 1부 금요일 오후 6:30분
- 청년 2부 금요일 오후 6:30분
- 부부청년부 토요일 오후 2:30분

시민협회의 제21호 회지 발간을 축하합니다.

## 뉴잉글랜드 이화여고 동창회

Ewha Girls' High School Alumnae of New England

781-861-9084

시민협회의 제21호 회지 발간을 축하합니다.

## 뉴잉글랜드 한인 세탁인 협회

New England Korean Dry Cleaners Association

508-826-5270

회장/ 조온구, 이사장/ 조봉준  
서기/ 변철우, 섭외부장/ 김성배, 회계/ 윤인규

www.tewksburyanimalhospital.com

# Tewksbury Animal Hospital

Serving the Community Since 1976

Moon S. Kim, D.V.M.

1098 Main Street Tewksbury, MA 01876  
978-851-3626

www.wvhonline.com

# Wilmington Veterinary Hospital

James J. Kim, V.M.D.

11 Burlington Avenue ? Wilmington, MA01887  
(978) 658-5282



## 밀알한인교회가 이전하였습니다.

새로운 건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곳에서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며 밀알교회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 예배 시간 안내

- \* 주일예배 오전 11시
- \* 유치부 오전 11시
- \* 유년부 오전 11시
- \* Youth 오전 11시
- \* 한글학교 오전 9시 45분
- \* 수요일예배 오후 8시

담임목사: 김 이 근

(Lee Geun Kim)

Email: [pastorkim@milal-church.org](mailto:pastorkim@milal-church.org)

- 전화: 978-244-0691
- 홈페이지: [www.milal-church.org](http://www.milal-church.org)



- 주소: 15 Alpha Rd. Chelmsford, MA 01824
- 이메일: [admin@milal-church.org](mailto:admin@milal-church.org)

엔진수리, 튜업, 트랜스미션, 에어컨, 브레이크,  
페인트, 자동차전기,  
타이어, 오일교환, 머플러, 컴퓨터 테스트

영업시간  
월~금 :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 :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요일 : 정오부터 오후 4시까지(예약 필수)

## 태양자동차

78 Swan Street, Medford, MA 02155

781-391-6200

781-391-7700

## Oriental Grocery 한아름

항상 청결, 신선 유지, 가격 저렴  
각종 동양식품 일체  
위생적인 무공해 밀반찬



2376 Mass Ave., Cambridge MA

617-547-8723

시민협회의제21호회지발간을 축하합니다.



## 민주 평화통일 보스턴 협의회

대한민국 헌법기관

상생/소통/화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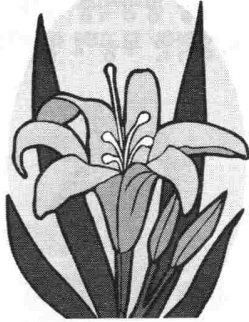
회장 홍진섭 간사 이동문

5955 Post Road, North Kingstown, RI 02852 . (401) 481-4900  
bostonnuac@gmail.com

Weddings, Functions, Funerals,  
All Occasion Balloons, Plants,  
Fruit/Gourmet Baskets

# Anderson Florist

## 앤더슨 꽃집



# 781-894-1843

Fax: 781-891-5161  
717 Main St., Waltham, MA 02452

### 미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회계정리

경영진단 및 절세상담



공인세무사

## 김창근

TEL: (781) 935-4620 FAX: (781) 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24 Woburn, MA 01801

## Shabu·Ya

**위치**  
하바드 스퀘어  
신라식당 / 스테이플스 건물 2층  
57 JFK Street  
Cambridge, MA 02138

**(617) 864.6868**  
[www.shabuyarestaurant.com](http://www.shabuyarestaurant.com)

**주차정보**  
샤부야에서 걸어서 3-4분 거리인  
찰스호텔 주차장에 오후 3시 이후에  
주차하시면 \$5.00 입니다.

넓고 상쾌한 나무 예쁜 공간

재래도넛 김치만 브로쓰

스페셜월부터 사시어까지

**COLDWELL  
BANKER** 

realtorsong@gmail.com

## 송현미 부동산

Hyunmee Elaine Song  
(Realtor, ABR, SRES)  
New Home Specialist

Direct: (617) 835-7664  
Office: (781) 862-2600

25 Waltham St., Lexington, MA 02421

**COLDWELL  
BANKER** 

RESIDENTIAL BROKERAGE

부동산 중개인

**김현구**

Chris H. Kim

"정직과 성실로  
도와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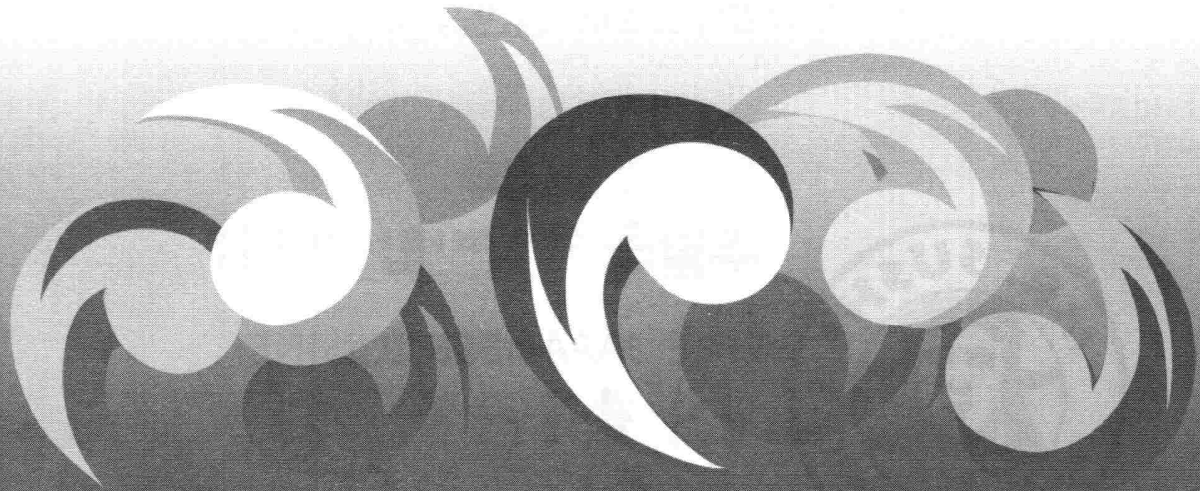
주택무료감정



617.694.0985/Cell  
617.796.7333/Voicemail  
617.969.2447/Business  
617.969.7912/Fax  
Chris. Kim@NEMoves.com

Boston  
Brookline  
Newton  
Lexington  
인접한 지역 및  
Greater Boston

1261 Centre Street Newton, MA 02459  
[www.NewEnglandMoves.com](http://www.NewEnglandMoves.com)



지휘: 박진옥 / 단장: 장수인

**보스톤 한인 합창단**  
BOSTON KOREAN CHORUS

# 사업체 및 개인 세무보고

- IRS 문제 상담 및 해결 ● ● 경영진단 및 결세 상담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IRS, TAX ID 번호 발급 (ITIN) ●



공인 회계사 (C.P.A.) **정진수**

- Harvard University 경영대학원 졸업 (MBA)
- Pricewater House Coopers 감사부장 경력
- 현재 Baystate Tax Principal

528 Pleasant St. Suite 2 Brockton, MA 02301

**508-580-3946** (한인 전용)  
508-584-5860

시민협회의 제21호 회지 발간을 축하합니다.

Beer & Wine  
생선초밥 · 생선회

**주말은 예약바랍니다 !!**



FINE JAPANESE CUISINE

일식 전문 식당

*Mr. Sushi*

329 Harvard St. Brookline, MA 02446

617-731-1122

Prescott & Son Insurance Agency  
(Since 1855)

**이문항 보험**

자동차 / 주택  
사업체 / 건물

**781-325-3406**

mleeins@gmail.com  
963 Eastern Ave., Malden, MA 02148  
Phone: 781. 322. 2350  
Fax: 781. 322. 3093

**WOW!!! ENJOY**  
**REGA'S KOREAN BBQ BUFFET**

ALL YOU CAN EAT ALL YOU CAN BBQ

REGA'S KOREAN BBQ BUFFET RESTAURANT

609 S UNION ST.  
LAURENCE MA 01843

978 725 5222  
978 725 5223



# 퀸지영생장로교회

Quincy Youngsang Presbyterian Church (PCUSA)  
270 Franklin Street, Quincy, MA 02169 ◇ (617) 770-2755 (Tel/Fax)  
www.Quincychurch.org

## 하나님의 기쁨 세상의 소망

담임: 김무경 목사  
행정일 · 사무: 최경아 전도사  
교육: 노정철 전도사

### 예배

주일예배: 주 일 2:00 pm  
주일학교(영어): 주 일 2:00 pm  
아침 기도회: 월-토 6:00 am  
                  주 일 8:30 am

### 모임 및 성경공부

주부성경공부: 화 11:30 am  
수요성경공부: 수 7:30 pm  
청년선교회: 금 7:30 pm  
일대일제자양육성경공부: 수 시

### 퀸지한국학교

토요일 9:00 am



시민협회의 제21호 회지 발간을 축하합니다.

Kim Law Offices **김연진 변호사**

Yeon Kim, ESQ.

15 N.E. Executive Park Burlington, MA 01803

**617-742-7707**

Fax: 617-507-2696

시민협회의 제21호 회지 발간을 축하합니다.

Attorney At Law **법률 사무소**  
**김성군 변호사**

Law Office of Song K. Kim

160 Main street, Stoneham, MA 02180

**781-438-6170**

Fax: 781-438-6177

[WWW.SONGKKIMLAW.COM](http://WWW.SONGKKIMLAW.COM)

시민협회의 제21호 회지 발간을 축하합니다.

www.DrJinS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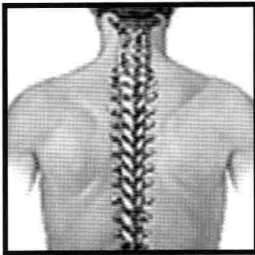
## FUNCTIONAL CHIROPRACTIC

척추신경 전문 **성진우**  
Dr. Jin W. Sung Chiropractic Physician

126 Merrimack Street Methuen, MA 01844

**978-688-6999** Fax: 978-688-4747

시민협회의 제21호 회지 발간을 축하합니다.



Boston Pain & Rehab Center

## 보스톤 통증 클리닉

물리치료 전문의 **윤 창**

Doctor of Physical Therapy **Chang Yoon**, PT, DPT

524 Harvard St, Brookline, MA 02446 **617-731-1004** Fax: 617-731-1001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는 미국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오랜 역사를 가진 학교로서 1975년에 개교하였고  
미 연방정부와 메사추세츠 주정부에 비영리 단체로서 공식 허가를 받은 학교입니다.  
34년의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2011년 현재 기초 유치반, 성인반과 SAT-에 한국어반까지  
모두 450여 명의 학생들이 한국어와 한국역사, 문화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튼튼하고 슬기롭고 자랑스럽게!'라는 교훈을 바탕으로 교사회(남일 교장), 이사회(윤경숙 이사장), 학부모회(김은성 회장)등  
학교의 세 기구가 장기발전 계획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훌륭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늘 부단없는 노력과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뉴잉글랜드 한국학교의 수업 시간과 학급 편성은 다음과 같으며,  
학교 문외 및 교사 지원과 등록은 아래의 주소 또는 학교 홈페이지(www.ksneusa.org)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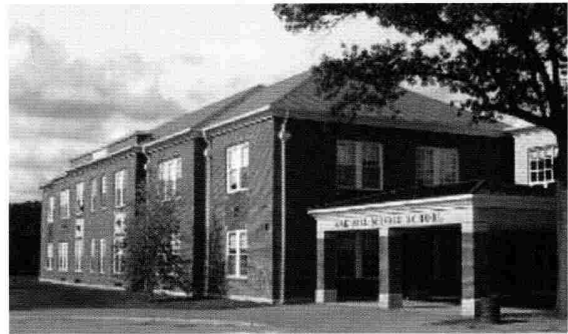
## KOREAN SCHOOL OF NEW ENGLAND

### 1. 등록연령: 3세 ~ 성인

### 2. 수업시간 및 교과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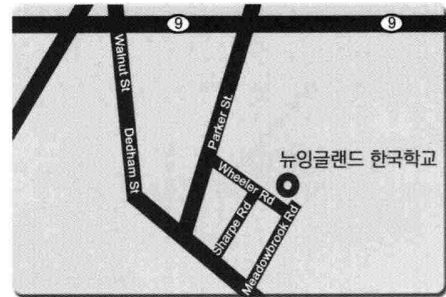
▶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 12시 40분

- 오전 정규수업 과정:
- 한국어, 한국 문화, 한국 역사, 작문 등
- 오전 특별교육 과정:
- 음악교육(1 & 2), 붓글씨, 단소, 한국무용(1 & 2)
- 오후 특별활동 과정:
- 과목: 한국무용팀, 발레, 태권도, 미술(1 & 2)
- 펜싱, 바둑반, 붓글씨반
- 성인반 수업: 9시 30분 ~ 12시 30분 (성인1 & 2반)



### 3. 학급및편성: 42개 반

- ◆ 기초과정(8)
- ◆ 초급과정(5)
- ◆ 중급과정(3)
- ◆ 고급과정(3)
- ◆ 성인과정(2)
- ◆ 오전특별교육반(10)
- ◆ 오후특별활동반(8)
- ◆ 세종과정(5)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C/O Oak Hill Middle School

### 4. 등록/학교문의/교사지원

교장 남 일 ☎ (508) 523-5389 Email address: ksneusa@verizon.net  
교감 윤미자 ☎ (978) 987-7388 Email address: mijayun@hotmail.com